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018호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충남도, 9개 시 · 군에 25개사 4616억 원 유치

합동 투자협약 체결… 서남부 13개사 '둥지' 균형발전 기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 수도권 기업 등을 대거 유치하며 도내 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또 산단 조성 이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당진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과 금산 약초특화농공단지에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 분양률이 80% 안팎으로 상승하게 됐다.

양승조 지사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등 9개 시 · 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종근당건강' 김호곤 대표이사를 비롯한 25개 기업 대표 등과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25개 기업은 천안과 보령, 아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등 9개 시 · 군 내 산단 등 59만 8316㎡의 부지에 4616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MOU 체결 기업 중 본사 이전 기업은 10개사, 수도권 이전 기업은 7개사로 집계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139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커피가공 업체인 '쟈뗑'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천안북부BIT일반산단 내 1만 6123㎡의 부지에 161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반도체 설비 프레임 업체인 '탑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역시 천안북부BIT일반산단 3만 3057㎡에 187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고, 일반구조용 강관 제조업체인 '한진철관'은 인근 개별입지에, 아크릴 고분자 접착제 업체인 '티티티'는 천안동부바이오 산단 등에 각각 140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자해 새롭게 공장을 마련한다.

보령 청소농공단지에는 수력 ·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인 '뉴페이스원'과 김 가공 업체인 '갓바위식품'이 오는 2021년까지 각각 40억원과 58억 원을 투자해 새 공장을 짓는다.

아산 디지털일반산단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영광YKMC'이 2022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고, 전자식 이음관 밸브 제조업체인 '대연'은 2022년까지 121억 원을 투자해 개별입지에 공장을 이전한다.

핫도그 제조업체로 유명한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은 계룡2일반산단에 20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새롭게 건설한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종근당건강은 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키로 하고, 산단 내 13만 725㎡의 부지에 오는 5월부터 2030년 10월까지 1822억 원을 투입한다.

종근당건강의 이번 투자에 따라 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단은 55%에 머물던 분양률이 78%로 상승하게 됐다.

당진에는 또 오일레스 베어링 제조업체인 '에스지오'가 30억 원을, 소석회와 석고 제조업체인 '영월이엔에스'가 80억 원을, 텅스텐 · 바나듐 · 티타늄 분말 소재 업체인 '한내포티'가 1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지난 2014년 3월 조성됐으나 절반밖에 팔리지 않은 금산약초특화농공단지에는 건강식품 업체인 '토음'과 제과 · 제빵 업체인 '다우FS'가 각각 이전, 분양률이 87%로 상승한다. 토음과 다우FS는 오는 2022년까지 106억 원과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천 지역 산단에는 물류자동화 설비 업체인 '티에스피지', 자동차 바닥시트 제조업체인 '트래닛', 활석 컴파운딩 제조업체인 '코츠', 금속문과 창호, 셔터 제조업체인 '아신코퍼레이션' 등 4개 기업이 공장을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증설한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단에는 '지노아이앤티'와 '은성전장'이 수도권 공장을 이전키로 했다.

정수기 온수모듈 업체인 지노아이앤티는 2021년까지 1만 962㎡의 부지에 72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품 전자인쇄회로 업체인 은성전장은 1만 809㎡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홍성에는 이와 함께 탄산음료수와 과일음료 업체인 '남양에프앤비'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400억 원을 들여 12만 9532㎡ 규모의 개별입지 부지에 이유식 공장을 증설한다.

예산에는 3개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항공기용 부품 업체인 '스펙코어'가 250억 원을, 재생합성수지펠렛 업체인 '영남케미칼'이 220억 원을, 주조설비 업체인 '태진기연'이 15억 원을 투자해 예산신소재일반산단에 공장을 새롭게 마련한다.

도는 이번 25개사가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정상 가동 할 경우, 도내에서는 연간 5195억 9000만 원의 생산 효과와 1120억 7800만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이 오로지 기업활동에만 전념하고,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과 결정이 가능성을 넘어 성공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성구 기자

공주 '2019 계룡산 벚꽃축제' 4월 5일 개막

축제 기간 동학사 일원 '무료 임시주차장' 운영

중부권 최대 축제인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가 오는 4월 5일 개막해 14일까지 동학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주시(시장 김정섭)와 계룡산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손중석)에 따르면, 개막일인 5일 동학사 야외무대에서는 식전공연과 개막행사, 초대가수 공연 등이 이어지고 야간에는 불꽃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이삼평공원에서는 추모제가 열리고,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철화분청사기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공주시는 축제 기간 반포면 동학사 일원에 무료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관광객들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계룡산 동학사에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윤석봉 도시정책과장은 "오는 5월부터 78억 원을 투입해 반포면 학봉리 일원에 대형차를 포함한 약 1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사계절 계룡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논산 돈암서원 홍살문, 천안 00유림단체서 훼손후 4개월째 방치… 실질적 배상책임 외면

충남 논산시의 대표적 유교문화 유산인 돈암서원 입구에 세워진 홍살문이 천안시 00유림단체에서 지난해 11월 경 방문, 45인승 버스로 훼손하고도 4개월째 방치 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의 버스를 운전한 운전자는 사고 광경을 목격한 조경 인부들의 신고를 받고 경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 등을 파악한 서원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경위 파악에 나선 논산시 담당부서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기명날인 하고도 원상복구에 대한 논산시 및 돈암 서원 측의 배상 요구를 문제 차량이 들어둔 보험회사 로 하여금 협의를 대행케 하는 등 사고 발생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실질 적인 배상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고발생일인 지난 2018년 문제의 차량에 탑승 20여명의 방문객들은 모두 유림의 일원이며 이들을 인솔한 김 모 씨는 충남유도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터여서 서원이나 향교 앞에 세워진 홍살문의 상징성과 홍살문 옆에 서있는 하마비 [下馬碑] 의 의미 또한 모를리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들의 비례무도 [非禮無道] 한 몰지각 행위는 사정당국에 고발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당시 돈암서원 관리를 맡고 있던 김모 [67] 씨는 사고가 발생한 그날 [2018년 11월 19일 오후 3시경] 문제의 45인승 전세버스가 홍살문으로 진입 하다 차량 지붕위에 홍살문 상층부가 걸려 파손되면서 차량진입이 어렵게 되자 문제의 차량은 간신히 후진 한 뒤 홍살문 우측으로 선회 돈암서원 입덕문 앞으로 진행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 했다고 말했다.

또 20여분 동안 돈암 서원을 돌아본 뒤 이 문제의 차량은 관리소에 산고조차 하지 않고 서원을 빠져나가는 사실도 확인 했으며 처음부터 사고 현장을 지켜본 조경 인부들이 자신에게 알려 줬다고 덧붙였다.

돈암서원의 관계자는 "훼손된 홍살문이 원상복구가 어려울 만큼 파손이 된 터여서 새로 조성하는데 어림잡아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며 문제의 홍살문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조성하는데도 문화재 관계자들의 고증이나 제안이 수반돼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 · 대학생위원회

발대식 갖고 '본격적인 활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조승래)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신웅)과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24일 대전 서구 만년동 '스페이스 티'에서 국회의원 및 각 지역위원장, 구청장 및 핵심당원과 청년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서 김신웅 청년위원장은 "현재 가장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으며, 가장 강력한 변화 욕구를 갖고 있고, 그 현실을 돌파할 힘을 갖춘 집단은 청년세대 외에는 없다"며 "많은 청년이 교육, 취업, 창업, 거주, 출산 그리고 삶을 꿈꾸는 청년이 모이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를 모토로 하는 청년위원회로 열심히 보단, '잘'하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학생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학생의 열정과 패기를 하나로 모아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성원에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제 최근 청년 · 대학생 이슈인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에다가 최근에는 젠더이슈까지 복잡해졌는데 정작 문제는 이런 청년의 다양한 이슈를 기득권자나 기성세대들이 청년에게 베푸듯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점이 안타깝다"며 "다양한 움직임들이 기성세대에게 경종을 울리고 제도화, 질서를 만들어갔던 힘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과 대학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청년의 힘"이라며 "대전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젊은 당원들과 정치인들이 같이 노력해 청년들이 잘살 수 있는 대전시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며 청년 ·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축하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청년이 강한 더불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 집권여당의 청년으로서 활발히 교류해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청년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자"고 말했다.

청년 · 대학생위원회는 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구성원이자 청년으로서의 활동 계획과 각오를 담은 청년선언문을 채택하고 낭독했다.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이날 청년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정신과 성과는 계승하고 잘못된 관행은 끊어내겠다"며 "정당의 주변인이 아닌, 정당정치의 주체로서 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당 문화 정착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출신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는 화합과 연대 ▲원칙을 지키며 당원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에 기초한 활동을 하겠다고 선서했다.

김정환기자

서천군의회, 청년분야 정책간담회 가져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및 지역 청년기업인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여성단체에 이은 두 번째 직능단체 정책간담회로 서천군 청년정책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설정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해 위축된 사회분위기속에서 청년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사회참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석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약 30억원 확보

공주북중 드디어 강당과 급식실 생겨

정진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공주 · 부여 · 청양)이 교육부로부터 '공주 북중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 15억300만원, '부여초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사업' 9억5,200만원, '규암초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사업' 5억3,000만원 등 총 29억 8,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공주북중학교는 그동안 다목적 강당이 없어 우천, 폭염, 미세먼지 농도 상승 시 정상적인 체육수업이 어려웠으며, 입학식을 비롯한 각종 교내 행사를 외부에서 개최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또한 급식실이 없어 인근 건물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하에 위치한 조리실은 매우 협소하고 식중독 사고 위험에 노출됐었다.

하지만,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24억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학교와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

한편 부여군의 부여초와 규암초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낡은 창호 교체와 건물 외벽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교육부에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 의원의 요청에 부응해 공주북중과 부여초, 규암초 등 3개 학교의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을 선정하고 각 사업별로 각각 15억300만원과 9억5,200만원, 5억3,000만원 등, 총 29억 8,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공주북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염원해오던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사업을 마침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부여초와 규암초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학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어기구 의원, 세종시 중앙부처 방문 당진 현안 협의

농식품부 · 해수부 · 국토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잇달아 방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5일, 정부 중앙부처들을 잇달아 방문해 당진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고대면 진관 1리와 신평면 신송 1리가 신청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개발 사업으로 진관 1리와 신송 1리는 각각 총 사업비 5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어 방문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제5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합덕~고덕(국도40호선) 4차로 확장 사업과 당진~송악(국도32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에서는 석문호 유입하천인 시곡천, 백석천 오염개선사업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당진 유치를 건의했다.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입주예정인 수청 2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요청했다.

어기구의원은 "각 중앙부처를 상대로 당진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진 현안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시로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당진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이명수 의원, 관내 초등학교 시설 교체 교부금 확보

남성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교체와 오목초등학교 창호 교체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 남성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교체와 오목초등학교 창호 교체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성초 냉난방시설 교체를 위해서는 2억 6,400만원, 오목초 창호 교체를 위해서는 3억 2,6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007년에 개교한 남성초는 냉난방기기의 내용연수 초과 등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 및 관리비 증가 문제를 겪어왔다.

오목초는 노후화된 창호로 인해 여닫이가 원활하지 않아 문이 자주 이탈하는 등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왔으며, 오래된 창호로 방충망조차 설치할 수 없어 여름철에 모기 및 여러 해충들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특별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이명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특별교부금 확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직도 학교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도 피력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기재부 차관 만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긍정적 답변 받아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 협조 요청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는 25일 세종특별시에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을 만나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통과」는 장기간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와 민원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대전시도 관련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구기자

daejeontoday.com

이상민 의원, 최초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법안 국회 발의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사업분야로 그간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김성구기자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3월 중 의원출무일을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

이날 출무일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과, 당진 ·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현황 ▲안전총괄과,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소통협력새마을과,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현황 및 활성화 계획 보고 ▲평생학습체육과, 2020 충청남도 체육대회 기본계획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항만수산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신청 상황 보고 ▲자원순환과, 석문국가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진행상황 ▲건설과, 「당진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농업정책과, 학교급식 행정직영 전환 운영현황 등 11개 부서 16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시정운영에 심도 있는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및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의회, 어르신들의 목소리 '경청'

대한노인회아산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 실시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25일, 대한노인회아산시지회 임원들과 간담회 실시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노인회아산시지회 오치석 회장을 포함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경로당 운영비 특히 양곡비와 냉 · 난방비 통합사용에 대한 건의 등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치석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아 주어 감사드리며, 노인들이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 복지문제에 아산시의회가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애 의장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아산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우리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건의사항들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민주연구원, 지역현안 발굴과 자치분권 · 균형발전 논의

더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3월 26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이음홀에서, 다음 날은 3월 27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부산광역시당과 공동 주관 하에 '민주자치발전포럼' 행사를 각각 개최한다. 이번 부산 민주자치발전포럼은 "2019년 핵심사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부산광역시당, 민주연구원이 함께 주최 · 주관하는 행사이며, 경북 경산시, 대구 동구, 경남 창원시 · 통영시, 울산광역시를 거쳐 부산에서 개최된다.

행사 당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해영 의원을 비롯하여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 광역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틀간 진행하는 정책토론회는 지역현안 발굴 및 국정과제 지역특화사업 개발,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 2019년 핵심사업과 추진 현안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윤정노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과 도용희 부산광역시의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고,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학과 교수와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이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보다 초점을 맞춰, 첫 번째 순서로 '금정구의 2019년 핵심사업과 추진 현안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문기룡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과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고, 변강훈 (재)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과 김창훈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두 번째 순서에는 '동래구의 2019년 핵심사업과 추진 현안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김광일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장과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현안과 과제를 발제하고, 이석환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정지영 신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강철수기자

대전시 '새봄맞이' 색깔 유도선 재 도색

올해 24곳으로 확대 적용, 누구나 쉽게 주행할 수 있는 산뜻한 도로환경 조성

대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 및 '새봄맞이'를 위해 4월까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인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을 재 도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8년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교차로, 지하차도, 분기점 등 20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24곳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올해 계룡지하차도 등 퇴색된 20곳의 색깔 유도선을 재도색하고 대전 오월드 등 4곳에 색깔 유도선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색깔 유도선 운영 후 시민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대전을 찾는 손님들이 낯선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전 관광명소 주변 등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공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면 표시 재 도색사업을 이달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50개 노선 13만 9,300㎡에 대한 재 도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선 기자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추진단 3기 발족

건강한 학교급식 위한 민-관 협력 시즌3 시작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바람직한 식생활개선으로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학교급식추진단 3기를 결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추진단은 학부모 · 학계 · 시민단체 · 농민단체 대표를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학교급식추진단은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정책과 관련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체험활동,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역 친환경 · 우수농산물 사용 활성화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2기에 걸친 학교급식추진단 활동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건강한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전통장류의 학교급식 적용 등 충남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발전에 큰 발판이 되어왔다

김지철 교육감은 추진단 위촉식에서 "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전 학년 무상급식을 넘어 사람과 환경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급식추진단의 자문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공주,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최적지' 조사연구 나와

목원대 최혜진 교수, 유치 당위성과 향후 과제 조사보고

국립국악원 분원의 충청권 건립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한 공주시가 문화적 인프라와 접근성 측면에서 최적지라는 조사 연구가 나왔다.

목원대학교 최혜진 교수는 공주시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립국악원 중부분원 공주유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공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범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국악문화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주는 국악원의 전신인 장악원이 설치되어 중부권 소리꾼들의 성장과 활동이 집중됐던 중고제 판소리 발흥지로, 명창 박동진 선생을 배출한 공주에 국립충청국악원을 유치해 충청의 음악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명창명고대회를 통한 전국의 우수한 소리꾼을 배출해 오고 있으며,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과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음악의 도시로 어느 곳보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위해서는 백제문화와 중고제 문화를 계승하는 연구, 교육 기능을 타 지역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백제기악 복원과 공주지역 풍물 및 민요 전승 보존, 중고제 판소리전승교육센터 설립, 중고제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Global Phtovoltaic Conference 2019

국립 한밭대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박세웅 · 박태준 학부생>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신소재공학과 학부생(박세웅 4학년, 박태준 3학년)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Global Phtovoltaic Conference 2019'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Global Phtovoltaic Conference 2019'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이다.

박세웅 · 박태준 학생이 발표한 학술회의 논문은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ilver nanowire – ZnO nanorods transparent electrodes for solar cells' 이다.

이 논문은 기계적으로 매우 유연하고 가격이 저렴한 태양전지용 나노재료 투명전극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건물외벽 및 자동차 등에 설치 가능한 태양전지 개발에 이바지 하여 도심형 태양광 에너지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정중희 지도교수는 "이번 수상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연구참여와 교수님들의 열띤 전공교육이 합쳐져 얻어낸 큰 성과다"라며, "학업에도 열중하여 성적 우수장학금을 받고 있는 박세웅 · 박태준 학생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나라사랑 체험소감문 공모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율정)은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통해 느낀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호국의지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나라사랑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고자 제15회 나라사랑 체험소감문 공모를 시작한다.

참가대상은 2019년 체험교육에 참여한 전국의 초 · 중 · 고 학생이며, 모집분야는 시와 수필부문으로 모집하고 있다. 체험소감문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집하며 시는 1인 3편 이내, 수필은 1인 1편(초등학생은 A4 1장 이상, 중 · 고등학생은 2장 이상) 제출할 수 있다.

작품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www.dnc.go.kr) 참여/신청마당-나라사랑체험교육-나라사랑체험소감문접수 코너에 신청하면 된다. 시와 수필부문 입상작은 11월 중에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12월 중에 시상한다.

입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상, 국립대전현충원장상을 수여하며, 각 부문별로 지도교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선양팀(☎042-820-7063)

송병배 기자

아산시-아산시교육지원청 교육협업사업 '첫발'

아산시(시장 오세현)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은 지난 22일, 아산 에듀팩토리 개소식을 개최하고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아산'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017년 아산시와 교육지원청의 아산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해 2018년 교육부 주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올해 핵심사업으로 아산행복교육지원센터인 에듀팩토리를 설립했다.

시는 충남 첫 사례로 아산시 교육청소년과 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실무진은 각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하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할 수 있는 아산 에듀팩토리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며, "아산시가 어느 시군보다 먼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작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행복마을학교 지원에 앞장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 에듀팩토리 개소가 두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 모두에게 희망 주는 아산교육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현대제철 '해피프리즘' 4기 발대식 가져

94가족 311명의 가족봉사단 활동 시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족봉사단 '해피프리즘'은 지난 23일 4기 발대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94가족 311명의 가족봉사단 '해피프리즘'은 당진제철소 100년 안전 문화관 대강당에서 발대식 후 해외 기아 아동에게 전달할 티셔츠 꾸미기 활동을 실시했다.

박종성 당진제철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해피프리즘 활동을 통해 당진 곳곳에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발대식은 봉사자 결의 선서, 봉사자 마인드 교육, 티셔츠 꾸미기 순으로 진행했으며, 봉사활동을 처음 접하는 가족을 위해 봉사자 소양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우리가 봉사를 해야하는 이유', '봉사자의 태도'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발대식 후 티셔츠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해피프리즘은 창의적인 그림으로 다양한 티셔츠를 꾸몄으며, 티셔츠 1,000장은 당진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해외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전달된다.

한편, 해피프리즘은 2013년 1기 창단 해 올해 7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당진제철소 사우 배우자로 구성된 '마중물 주부봉사단'과 함께 당진 대표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아산시, 충남도와 합동 기업 투자협약 체결

㈜영광YKMC · ㈜대연과 기업 등 2개 기업 유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5일, 충남도청사에서 충청남도 9개 시 · 군과 25개 사가 함께하는 합동 기업 투자협약(MOU) 체결식에 관내 투자를 확정한 두 기업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충청남도 기업합동 투자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총 25개사로 아산시는 ㈜영광YKMC(대표 장관섭), ㈜대연(대표 김영식) 등 2개 기업을 유치, 총 361억원의 신규투자와 14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이끌어냈다.

이번 아산시 협약기업은 2개사 모두 창업자가 전문기술로 작게 시작해 뚝심 있게 30년 이상 꾸준히 성장시켜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우량기업으로 아산시에 수도권이전 · 신설 투자를 확정한 상태이다.

㈜영광YKMC는 반도체 표면처리 전문기업으로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한 소기업이었지만, 2009년 둔포면에 위치한 아산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1호로 입주하며 아산시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며 2018년 뿌리산업 발전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관련 분야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240억원 규모로 음봉면 아산디지털산업단지에 동일사업 제2공장(부지면적 9,989㎡)을 신규로 추가 건립한다. 이를 통해 추가 일자리 약 40개 이상이 창출될 예정이다.

㈜대연은 도시가스관 · 수도관에 사용되는 PE이음관과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 경기도 광주시에서 기업 이전을 고심하던 중 도고면 오암리 소재 임대공장을 낙점하고 121억의 투자를 약속했다.

전체 120명의 숙련된 직원들과 동반이주를 계획 중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아산지역에서 약 1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에 따라 직원 동반이주에 도움을 주는 한편, 신규 고용 계획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9개 시장, 군수의 기업유치에 관한 정책현황 및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자의 간담회도 이뤄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체결식에 앞서 가진 간담회를 주재하며 "충남 발전에 기업인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앞으로 여러 시장, 군수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YKMC 장관섭 대표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아산시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으며, ㈜대연의 김영식 대표 역시 "본사 이전과 인력 충원 등 앞으로 아산에 정착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충남도의 배려로 수도권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돼 아산에 투자한 기업의 본사 이전, 신규 고용, 이주 직원 등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고 근로 환경 개선사업 등도 추가로 실시해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을 반드시 만들어 더 많은 기업이 충남과 아산을 찾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 사진 공모전

서비스 제공과정서 미담사례나 감동적 현장 등 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감동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체험사례를 발굴 전파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해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과 그 가족 및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미담사례나 감동적인 현장 등을 주제로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공모전은 27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30명에게 상금 97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홈페이지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중한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33)736-3690~3692, 3680)

송병배 기자

●동 정●●●

도시환경조성 업무 협약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6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대전범죄안전 도시환경조성 업무 협약에 참석.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황인호 동구청장= 26일 오전 10시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박용갑 중구청장= 26일 오후 2시 대흥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형건축공사장 업무협약식

장종태 서구청장= 26일 오전 11시에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형건축공사장 업무협약식에 참석.

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정용래 유성구청장= 26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

대덕구 민방위 통대장교육

박정현 대덕구청장= 26일 오후 3시50분부터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대덕구 민방위 통대장 교육에 나선다.

중구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

호남선 철로변 화단 봄꽃 식재

대전 중구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희규)는 25일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회장 유재경)와 함께 호남선 철로변 화단에서 봄꽃을 심었다. 자원봉사협의회는 봄꽃 식재에 앞서 겨우내 쌓인 각종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돈해, 산뜻한 봄꽃과 어우러질 수있도록 정비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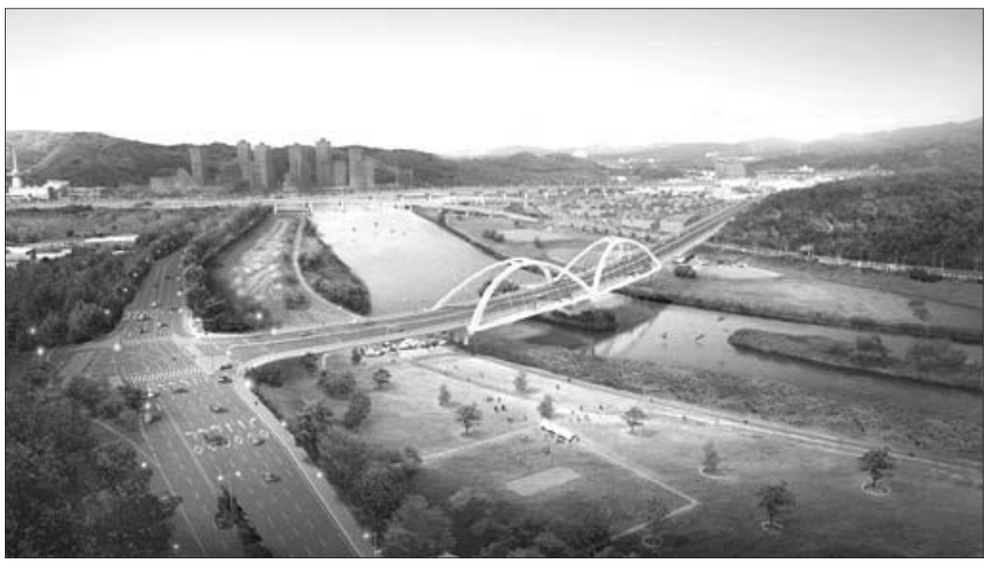
호남선 철로변은 유천2동에서도 손꼽히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매년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화단을 조성하고 계절별 꽃을 심어 지속적으로 가꾸며 도시미관을 살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다소나마 줄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날 화단 가꾸기에 참여한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의 입가에는 봄꽃같은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회원들은 화단의 흙을 고르고 팬지를 심으며 꽃향기가 가득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에 땀을 흘렸다.

박희규 동장은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활동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한 거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산단 서측진입도로(한샘대교) 건설 '첫삽'

물류환경 개선으로 새 도약 기대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한샘대교) 건설 공사가 25일 첫 삽을 떴다.

대전시는 25일 오후 3시 서구 평송수련원삼거리 옆 유등천 둔치에서 한샘대교 건설공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시의회 의장, 박범계 국회의원, 정용기 국회의원, 장종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주요인사와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행사장 입구에 안전시공과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응원메시지를 기록하고, 축포와 함께 성공적인 공사시행을 기원했다.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한샘대교)는 서구 둔산동 평송수련원삼거리에서 유등천을 건너 대덕구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서측을 연결하는 연장 420m 폭 23~32m의 왕복4차로 교량으로, 총사업비 446억 원이 투입돼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대전산업단지는 준공된 지 50년 가까이 돼 산업환경이나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유등천, 갑천, 경부선 철도, 임야 등으로 사방이 둘러쌓인 섬 형식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물류유통에도 지장이 많았다.

이에 2009년부터 대전산단의 재도약과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교량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1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는 한밭대교 등 인근교량 명칭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구청 등의 의견을 받아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하여 한샘대교로 이름 지어졌으며, 한(크다)샘(샘머리)의 뜻을 갖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한샘대교와 산단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물류와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산단 재도약은 물론, 교통 혼잡 해소와 동·서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사가 완료되는 그 날까지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은 하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폭죽, 꽃가루 살포 등을 자제하고 유등천 하천수를 이용한 분수쇼로 축포를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선 기자

VR·AR 기반 게임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조성

3년간 274명 고용창출, 285개기업 지원 425억원 매출액 달성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3년 동안 대전특화 게임콘텐츠(VR·AR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게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게임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중부권 게임산업 육성 거점인 '대전글로벌게임센터'를 구축하고 국비를 포함해 2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게임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285개 기업을 지원해 매출액 425억 원 달성, 신규 고용 274명 창출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대전시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강점을 살려 융복합 게임분야인 VR·AR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을 특성화해 차세대 게임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토종기업 발굴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14개사에 불과했던 지역 게임기업 수가 80개사로 500% 증가했다.

대전글로벌게임센터는 초기부터 인력수급, 콘텐츠개발, 판로개척, 사업화 분야를 구분해 기업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강화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우송대, 배재대, 홍익대, 공주대 등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게임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국책기관 ETRI와의 기술교류회, 국내 주요 VR 프랜차이즈업체와 교류 등 산학연 네트워크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역 기업이 겪는 인력수급, 기술개발,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 지원을 통해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용역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자생적 사업구조를 갖춰가기 시작했으며, 지역 게임기업의 경쟁력과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 초기 1대 1 수준이었던 게임제작 지원사업 경쟁률이 2019년 4대 1을 웃도는 등 지역 게임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주얼라이트는 VR 게임 'Throw Anything'을 출시, 유튜브 조회수 1,500만 건을 돌파했고, 국내·외 유명 VR테마파크 매장 20여 곳에 게임을 공급했다.

지난 9일에는 SONY '플레이스테이션 페스타'에서 지역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시연작으로 선정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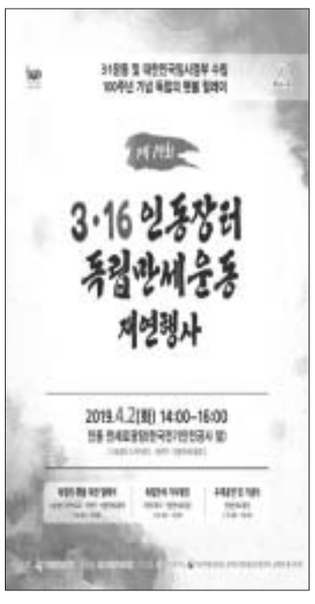
2017년 비햅틱스는 자체 개발한 VR 콘텐츠 전용 햅틱장비로 대만 HTC사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Vive X에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2018년 플레이캐슬과 비주얼라이트는 VR게임콘텐츠로 국내 1차 선발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대전 기업들이 VR 등 차세대 융복합 게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기업들의 시장진출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비햅틱스의 VR 게임 '페인트볼 배틀'은 동대문 '일루션월드'에, 플레이캐슬의 VR 게임 '이상하고 기묘한 박물관'은 '몬스터 VR'에 진출했고, 스크린 배드민턴 게임제작사 티엘인더스트리는 대전과 광주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했다.

동구 내달 2일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의 횃불·대전 릴레이 행사와 연계 추진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의 횃불, 대전 릴레이'와 함께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4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독립의 횃불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3월 16일 개최해 온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독립의 횃불, 대전 릴레이' 행사와 연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는 인동 만세로광장 앞에서 횃불 환영 및 안치 후 우금치 극단의 인동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공연에 이어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합창, 기미독립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등이 열린다.

횃불 릴레이 구간은 으능정이·대전역·인동 만세로 광장에 이르는 1.5km이며 생존 애국지사, 지자체장, 보훈 단체장 등 100여 명이 봉송 주자로 시민과 학생 500여 명이 동반 주자로 나선다.

횃불봉송과 함께 풍물공연, 축하공연, 만세삼창, 출정 퍼포먼스,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이색 봉송이 있을 예정이며 체험부스와 먹거리장터, 손도장 찍기, 사진전시 행사도 펼쳐진다.

황인호 구청장은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자유와 번영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원한다"며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회 문창동 살구꽃축제

29일, 다양한 볼거리·먹거리 준비

대전 중구 문창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승복)는 29일 문창시장 하상주차장에서 문창동 살구꽃축제위원회(위원장 김지헌)주최로 '제6회 문창동 살구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에선 대전천변에 늘어선 살구나무가 피워낸 화사한 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축제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우리동네 가수왕 선발대회로 주민화화의 장을, 축제장 인근 문창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식자재로 저렴하고 푸짐한 먹거리도 마련한다. 축제 수익금은 지역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생활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지헌 위원장은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을 보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문창동 살구꽃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축제도 즐기고 문창시장에서 장도 보는 알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T&G 신탄진공장, 희망나눔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홀몸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

KT&G 신탄진공장(공장장 신성식)은 지난 23일 대덕구 회덕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곰팡이로 얼룩진 천정과 벽을 새로 도배하고, 전반적인 주거 시설의 개보수 활동을 펼쳤다.

대상 가구에 거주하시는 홀몸어르신은 쾌적하게 변한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했는데 깨끗한 공간으로 바뀌어 몸과 맘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원후 회덕동장은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KT&G 신탄진공장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초·중·고학교장 간담회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28일 진잠·원신흥 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별·분기별 총 8회에 걸쳐 초·중·고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유성구가 교육지원 사업 설명과 교육협력 과제 논의, 각급 학교의 건의사항 수렴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으뜸교육도시 유성' 실현을 위해 매년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진행해 오던 기존 운영방식을 지역별·분기별로 구분하여 총 8회에 걸친 소그룹(10명 내외) 형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의견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간담회는 지역 교육문제나 정책, 협력과제, 지역현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오찬 간담회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구와 학교 간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지역 교육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등 교육도시 유성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장과 학교장과의 간담회는, 1분기 진잠·원신흥 지역을 시작으로 ,2분기 온천1·온천2·노은1, 3분기 노은2·노은3·신성, 4분기 전민·구즉·관평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서구 '시책 일몰제' 도입

행정 낭비 요인 제거·구정 운영 효율성 극대화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위해 '시책 일몰제'를 도입한다.

이번 시책 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이나 업무, 예산 낭비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오는 4월 30일까지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제도?사업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 원칙'에 따라 점검하고 일몰 대상 업무를 발굴하여 6월 중 부서 자체심사와 관련 부서 검토,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

특히, 시책 일몰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과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거나 구정 현안 사업 추진에 재활용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조직 내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정리해 현장 중심 정책대안 마련 등 구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대전 택시 '대전방문의 해' 홍보에 힘 보탠다

'대전방문의 해' 스티커 택시부착 홍보

대전 택시가 '2019~2021 대전방문의 해' 홍보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전시는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성태)의 협조를 받아 대전방문의 해 홍보 스티커 4,000매를 일반택시 오른쪽 문 상단에 부착하고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홍보스티커 부착 홍보 아이디어는 김성태 이사장이 먼저 제안했으며, 스티커는 대전시가 제작·배포했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대전방문의 해 홍보에 적극 동참해 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감사드린다"며 "택시가 '움직이는 홍보판' 역할을 하는 만큼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선 기자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청양군, 구기자산업 육성으로 2030년 1천억 시장창출 목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융복합지구조성사업에 선정돼 구기자산업에 향후 4년간 30억원을 투자, 2030년 1000억원 규모의 소비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중심, 단순 유통구조의 현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1, 2, 3차 산업을 동시에 육성,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뿌리내리게 할 방침이다.

청양구기자는 지난 2006년 지역특구지정, 2007년 지리적표지제 등록, 2014년 주산지 지정고시를 받았다.

현재 700여 농가가 50ha 면적에서 연간 200톤을 생산해 전국 친환경구기자의 85%, 전국 우수농산물인증(GAP) 면적의 93%를 재배하는 등 독보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구기자는 한약재 중 3대 명약의 하나로 꼽히며 뇌기능 활성화, 체내 산화스트레스 감소, 콜레스테롤 저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은 전북대 연구팀에 의뢰, 간기능 개선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2013~2019년)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는 한약재상이나 KT&G, 가공업체 등에 건구기자 형태로 단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량의 규모화와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기자 산지유통시설을 구축하고 품질의 균일화 및 규모화, 생산농가 조직화와 역량강화, 특화상품 개발 및 품질표준화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청양구기자의 안전성 확보, 품질 균일화, 대형수요처 발굴 및 수출확대를 통해 2030년 1000억 소비시장을 창출하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패키지사업 등과 연계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남대전농협 운영공개 열려

운영공개 · 문화공연 실시

남대전농협은 지난 22일 서구 관저동 관저문예회관에서 조합원 교육 및 운영공개 행사를 조합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협동조합 이념교육 및 남대전농협 2018년 결산보고를 겸한 운영공개와 함께 문화공연으로 구봉풍물예술단 '난타', 품바 '양재기' 공연을 펼쳤다.

강병석 조합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협조 속에 좋은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조합원은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대전농협은 2018년 27억 3600만원의 당기손익을 실현해 출자배당 5억 1100만원, 이용고배당 6억7900만원을 배당했다. 또, 사업이용량에 따른 사업준비금 8억 1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적립했다.

송병배기자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

당진시, 결혼 · 출산 장려 일환

당진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가 지난해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LH의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퇴거 시 반환을 조건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또한 전세자금 지원 신청대상과 동일하며, 추가로 전용면적 59㎡ 미만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연 최대 60만 원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40만 원 한도로 1인 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을 가산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당진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진=최근수기자

계룡시 녹색제품 구매 의무교육 실시

계룡시는 2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물품구매 및 계약담당자 등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을 실시했다.

녹색제품은 환경부 소관의 환경표지인증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재활용(GR)인증을 받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현재 사무용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등 1만 5천여개의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구매하고자 품목이 녹색제품에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민경보 (사)자원순환사업진흥협회 부회장을 초빙해 ?녹색제품 인증절차 및 의무구매 ? 국내외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 ? 녹색제품 구매방법 및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순환아스콘, 순환골재 등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 전략 등을 교육하며 건설현장에서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구매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계룡의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번교육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042)538-3030

농특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개장

서산시, 70여 농가 참여, 시중보다 10~20%이상 저렴하게 판매

서산시는 지난 23일 서산해미읍성과 운산면 여미오미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에서 농특산물정례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서산해미읍성 장터는 지난 2015년에 첫 개장하여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해미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 할 계획이다.

또한 운산면 예미장터는 원래 마을이름에 따라 여미장터였으나 옛 부터 이곳 사투리로 예미장터라 했다고 한다.

올해 첫 개장하는 예미장터는 오는 5월까지 여미오미 로컬푸드센터 주차장에서 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기방가옥 수선화축제와 연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터 참여농가들은 대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에 취약한 부녀농, 고령농, 귀농인 등 영세농가 위주로 구성됐으며, 정례장터를 통해 단골고객을 확보하는 등 판로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가가 직접 생산해 품질이 우수하고, 유통경로가 없어 시중 가격보다 10~20%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내실 있는 장터운영과 함께 직매장 등도 추가로 개장하여 대농가에 비해 판로확보가 어려운 고령농과 귀농인 등 지역 영세농가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길포 직거래장터도 오는 3월 30일부터 개장 예정이며, 시는 지난해 3개 장터에서 3억 5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4대 사회보험료 카카오톡으로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

QR코드 활용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들이 4대 사회보험료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비스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5일부터 은행 납부용 OCR 고지서 및 메일로 수령한 고지서의 '보험료 납부용 QR코드'를 활용해 「카카오톡 앱」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로는 편의점을 방문해 현금 또는 현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인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장했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납부자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서 고지서 QR코드를 인식시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를 통합징수 하고 있는 공단은 개인 또는 사업장별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11개의 다양한 납부채널을 현재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납부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을 더 편리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의 납부채널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맞춤형 HACCP 상담실 운영

대전식약청, 신규업체 · 준비업체 대상 HACCP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6일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및 준비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HACCP 상담실'을 대전식약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 · 세척 · 검란 · 살균 · 포장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연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HACCP 기준서 작성 운용 ▲시설위생관리 및 영업자준수사항 교육 ▲2019년도 HACCP 조사평가 방향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된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자동차부품사 활력제고 위해 업무 협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5일, 연일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관내 자동차부품사 위기극복을 위해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 이하 '신보')과 협약을 맺고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부품사의 적기 유동성 지원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다.

GM군산사태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내수 및 수출부진과 함께 현재 자동차산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래차 시대 도래, 글로벌 수요감소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구조조정 계획 등이 연일 보도되며 내연기관차에서 수소차 · 전기차 등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와 충남에서 가장 많은 400여개의 자동차부품사를 품고 있는 아산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함께 지역전략산업의 한 축인 자동차 업종의 대변화 속 과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사 활력 제고에 나서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MOU)는 아산시와 KEB하나은행이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48억원의 대출보증을 실시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에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산시 관내 소재한 자동차부품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보증기간 및 상환방식 등 세부문의는 신보 아산지점(☎041-530-3813)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의 글로벌 수요감소에 따른 부품사들의 물량 감소, 이에 따른 매출하락과 친환경차 전환흐름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책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관련업계에 유동성자금 부족 등 고충을 덜어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우리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자동차산업의 성공적인 전환과 글로벌 흐름 속에서 있을법한 어려움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아산시와 KEB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의 전환기에 맞춤형 선제대응으로 경영안정화를 꾀하는 것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협약 이후 올해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억원을 신보에 출연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百 대전점, '완도 수산물 대전' 개최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을경) 지하1층 식품관 매장에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 수산물 대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직원이 싱싱한 전복을 선보이고 있다. 28일까지 전복을 비롯한 다시마, 반건조 생선, 전복장 등 10여종의 완도지역 우수 특산물을 제안하고, 대표 상품인 전복 특대(8~9미)와 건다시마(1kg)를 각 5만 6000원과 1만 5000원에 판매한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19년 2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하였으므로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2개월이내에 그 채권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 됩니다.

2019년 2월 25일

주식회사 광만 에너지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570(태평동)

청산인 이 순 천

농작물 재배 전 토양검정 꼭 받으세요

당진농기센터, 올해 총 5000점 토양검정 계획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 실천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토양검정과 비료 사용 처방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 · 칼슘 · 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을 진단하는 것으로, 농경지 토양을 채취해 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토양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 5~10곳의 지점을 선정해 흙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서부터 20㎝ 깊이로 500g 정도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 읍 · 면 농업인 상담소에 의뢰하면 된다.

분석된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발급된 비료 사용 처방서를 활용하면 농경지에 적합한 밑거름과 웃거름의 사용량을 알 수 있어 불필요한 비료 사용을 줄이고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선택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작물재배에 앞서 토양검정을 실시해 사전에 점검하고 토양상태에 맞춰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며 "올해 총 5000점의 토양검정으로 농업인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세종시, 4~11월 6억 6,200만 원 투입…과속단속카메라 · 방지턱 등 설치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 구역은 앞서 진행된 일제점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두루초등학교 · 두루유치원 ▲연동초등학교 · 연동유치원 ▲연남초등학교 · 연남유치원 ▲장기초등학교 · 장기유치원으로 선정됐다.

일제점검은 시청과 교육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시의회, 녹색어머니연합회, 학교, 민간전문가, 민원인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65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총 6억 6,200만 원을 투입해 4개 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및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선정되지 않은 보호구역에 대해 자체사업비를 편성해 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후 개선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해 사고예방을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아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비지원센터 선정

아산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박남철, 이하 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충남권 5번째로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로 선정됐다.

센터는 매년 연간 1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센터는 생활기술훈련, 탈시설자립훈련, 자립상담, 권익옹호, 당구교실 및 네일아트교실 운영, 문화탐방 등 다방면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박남철 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며 "국비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교육청, 대전 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사업 등 공모

25일 부터 다음달 5일 까지 공모하여, 4월 말 선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사업 및 씨앗동아리를 공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사업 및 씨앗동아리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공모 접수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4월말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시범사업일 경우 10명 이상, 씨앗동아리일 경우 7명 이상으로 대전지역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협동조합, 교직원, 지역주민 등 이다.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사업은 2~4단체를 공모하여 총 2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의 인원규모 및 운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씨앗동아리도 20팀을 공모하여 지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 및 지원자격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혁신정책과 616-860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허진옥 혁신정책과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며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공모에 많은 단체가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커뮤니티케어 위한 워킹그룹 회의

대덕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등 논의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2일 대덕구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민들레의료사협, 사회혁신연구소, 품앗이마을, ㈜휴먼서비스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고 대덕구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민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제시된 민 · 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덕구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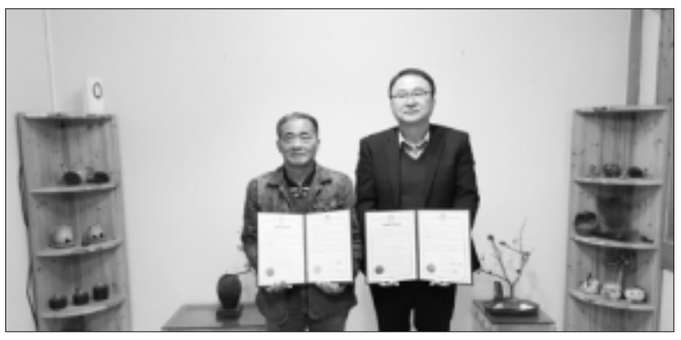
또한 워킹그룹의 좌장을 맡은 민들레의료사협의 나준식 이사장은 "그 동안 민간에서 논의한 추진 방향에 대해 대덕구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대덕구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 2~3차례 추가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포함한 대덕구형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공주에서 백제의 숨결 느끼며 '국궁' 체험하세요"

공주휴양사업소-공주시궁도협회, 국궁체험 협약체결



공주시(김정섭)가 공주한옥마을 방문객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국궁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휴양사업소와 공주시 궁도협회가 국궁체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공주시 국궁장은 한옥마을과 기와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한옥마을 방문객들이 국궁체험하기 안성맞춤으로, 공주시 궁도협회는 공주한옥마을과 협력을 통해 한옥마을 방문객뿐만 아니라 공주시 관광객을 위한 국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지규 공주시 휴양사업소장은 "관광객을 위한 국궁체험과 전통문화체험, 공예체험 등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공주한옥마을을 최고의 힐링 숙박시설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 발대식

금산군자원봉사센터, 8년째 제8기 봉사단 구성

금산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양현환)는 지난 23일 다목적군민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은 올해로 8년째 제8기 봉사단을 구성했으며, 2019년에도 관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9가족 91명이 올 12월까지 8회 차로 운영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금산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소개, 연간 가족자원봉사단의 활동 계획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자원봉사단이 자원봉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며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았다.

파랑새 가족자원봉사단은 월 1회 주말을 이용하여 양말인형 만들기, 재활용 비누 만들기, 벌레퇴치큐브 만들기, 레몬청 만들기,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 공모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작품접수 8월 16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원장 성낙원)은 2019년도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을 공모하며 오는 8월 16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부문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코미디, 뮤직비디오,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작품으로 작품 내용과 시간은 자유이며, 2018년과 2019년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응모 자격은 초등부(13세 미만), 중등부(14~16세), 고등부(17세~19세), 대학부(20세~24세 미만)등 4개 부문이며 해외 청소년도 출품 할 수 있다. 수상자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등 상장과 트로피를 받는다.

출품 희망자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홈페이지(http://www.dima.or.kr) 내 자료실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작품 파일과 함께 영화제 이메일 (dima2001@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예선을 거쳐 선정된 본선 진출 작품은 9월 중순 발표되고 10월중 개최하는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상영관에서 상영되며, 영상미디어 전문가와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 심사위원 심사를통해 수상작품이 결정된다.

송병배기자

보령시, 공연 · 전시 · 기부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3~5월 공연 확정…6~10월 참여 문화예술 동아리 모집

보령시는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문화예술 동아리와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국 국 · 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활성화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과 전시의 공존으로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박물관 관람시간 연장 운영 외에도 오후 7시부터는 1시간 동안 작은 음악회를 추가해 볼거리 다양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에는 'Yso Music' 팀의 해설이 있는 앙상블 이야기가 진행되고, 4월 30일에는 With Flute 앙상블 팀이 주관하고 칸타빌레 플루트 앙상블이 찬조 출연하며, 5월 28일에는 초 · 중 ·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팀의 공연이 열린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의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문화예술 동아리를 모집한다. 대상은 음악과 연극, 공연 등 제한이 없으며, 신청은 보령시 문화새마을과(☎930-3404)로 하면 된다.

보령=김정미기자

한국수자원공사 '2019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 2년 연속 수상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우수성 인정받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3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HRD협회 주최 '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에서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국가 물관리를 수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루어졌다.

또한, 물 전문가로서 실제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직원의 업무 특성에 맞춘 교육 과정을 입사부터 퇴사까지 지속해서 관리하는 '생애주기중심 역량개발체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수도관 누수 탐사와 긴급 복구 등 상황별 사고처리 과정을 반복해서 실습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인 '수도관망교육센터'를 운영해 직원들의 기술 역량과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시설을 통해 사내 기술교육과 더불어, 연간 2천명의 수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자체의 시설 담당 공무원과 민간분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네팔과 에디오피아, 요르단 등 외국의 물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관리 정책 수립부터 누수율 관리 등 실무적인 범위까지 다루는 '물관리 국제교육'을 운영하여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0여 개 국가의 4,7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물관리 분야의 전문인재를 육성하여 국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지역아동센터 3곳에 도서 252권 기증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는 25일 서울 용산구 소재 아동센터 3곳(생명나무지역아동센터, 한살림용산지역아동센터, 풍성한지역아동센터)에 직원들이 기부한 아동도서와 학습교재 등 252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정림중~사정교 간 순환도로망 구축 본격화

대전시는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4호선(계백로) 교통량 분산 및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서구 정림중 일원에서 중구 사정교까지 2.4㎞ 구간을 터널과 교량을 포함한 왕복 4차로(폭 20m) 도로로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906억 원(국비 418억 원, 시비 488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설계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대전시는 설계용역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해 3월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4월 설계 수행 업체를 선정해 2020년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대전 도심권 내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단절 도로망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구축 계획(7개 노선, 32.5km) 노선 중 첫 번째 사업이다.

대전시는 나머지 잔여 구간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등 6개 노선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간선도로망 정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우선 국가계획인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논산소방서, 딸기축제 안전체험장 시민들 호응 속 성료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논산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 '2019 논산딸기축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해 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청양소방서, 2019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25일 소방서 및 청양군청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유지 ·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해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충남대, 2019 대학배구리그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 충남대 배구부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목포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9 KUSF 대학배구 U-리그' 첫 경기에서 목포대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0(25:17, 25:22, 25:20)으로 제압하며 기분 좋은 첫 승리를 거뒀다.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개통 전담팀 운영

행복청, 관계기관 합동점검 운영… 2019년말 원활한 개통준비 철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이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의 2019년 원활한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42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오송읍 오송리(오송역 부근)에서 옥산면 신촌리(오송산업단지 신촌교차로 부근)까지 연장 4.7km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에서 지방도 508호선 신촌교차로 부근과 직행 운행(논스톱)으로 연결되어 통행시간은 10분(15분→5분), 거리는

3km(7.7km→4.7km)가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송역 부근부터 오송산업단지까지 7.7km 구간으로 잦은 신호교차로와 왕복 2차로로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청주공항 연결도로'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개통예정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충청북도에서 시설물을 이관받고 유지 ·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활한 시설물 이관과 운영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여 3월 25일(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순민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행복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충청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연내 원활한 사업준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서천소방서, 봄철 쓰레기 소각 주의 당부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들불 및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봄철(3월~5월) 기간 중 총 220건의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이 있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생활쓰레기 및 논 · 밭두렁 소각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오인출동을 줄이고 들불 및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군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오인출동이 줄지 않고 있어 강력 대응을 위해 재차 강조했다.

충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119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구기자

태안소방서, 화재 시 '대피가 최우선'

기존 소방교육 방식 벗어난 피난대피 우선 훈련 · 교육 추진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소화기 사용법 등 초기 화재진압에 치중했던 기존의 소방교육 방식에서 벗어난 피난대피 우선 훈련 · 교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다수의 거동불편 환자가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와 올해 1월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에서는 신속하고 발빠른 대피로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문을 닫고(방문, 현관 등) 둘째, 피난하고(문 · 현관 밖으로, 창문 넘어 계단으로) 셋째, 119로 신고해 인명 피해를 막는다.

또 비상구 상시 개방상태 유지, 주변 장애물 제거, 안전로프와 추락방지 스티커 부착, 계단 · 통로등에 안전픽토그램을 부착해 대피로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태안=김정한기자

동구, 정책투명성 강화 '국민신청실명제' 확대 도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이제 구민이 직접 선택…내달 5일까지 접수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주요 정책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결정과 집행과정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 사업으로는 ▲구정운영 주요 핵심사업 및 중장기 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구민이 신청한 사업 및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

주민 누구나 내달 5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접수된 사업은 신청기간 마감 후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4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아산 Wee센터, 지역협력모델 협의회

지역 간 네트워크 기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역협력모델 협의회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2일,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역협력모델 협의회를 진행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역협력모델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최적의 자원연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서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다중지원 제공 및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세 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이 협력하여 2019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들의 정서지원을 위한 사후관리계획 및 세부일정에 대한 논의, 위기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현장 밀착형 학생 정서지원의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조기성 교육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Wee센터 뿐 아니라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아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영업장의 경우 2019년 12월 25일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충북 청주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용객 5명이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구 추락사고가 잦음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보령소방서는 관내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 매년 지속적인 관리와 다중이용업소 현지 확인을 통해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 및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 ▲매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되살아난 '독립의 횃불' 4월 1일 천안을 밝힌다

충남동부보훈지청, 3 · 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진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가 세종에 이어 열여덟 번째 지역 '천안'에서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및 유관순열사기념관 등에서 진행된다.

릴레이 시작 전, 횃불봉송 환영 음악회가 진행되어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식전 공연 후, 오전 10시부터 독립의 횃불릴레이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등 주요인사 및 국민주자, 시민들이 참여하며 독립의 횃불 맞이, 점화식, 환영사, 공약3장 등을 통해 독립의 횃불의 도착을 다함께 축하한다. 기념식 후, 오전 10시 20분부터 과거 100년을 기억하고 미래 100년을 기약하는 국민주자 100명의 횃불 봉송 릴레이가 진행된다.

천안 국민주자로 양승조 충남지사 및 채순희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여하며, 독립유공자 유족 및 시민, 온라인 공모 선발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주자복 착용 후 횃불봉을 들고 행진을 진행한다. 횃불 봉송은 천안시동남구문화원에서 유관순열사기념관까지 총 1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KT&G,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4월 30일까지 접수

'밴드 디스커버리' 참가자 모집

KT&G(사장 백복인)가 신인 뮤지션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2019 밴드 디스커버리'의 참가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밴드 디스커버리'는 실력파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음악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쏜애플, 57, 로바이페퍼스, 다브다, 트리스, 맥거핀, 더 폴스 등 다수의 뮤지션들이 배출되어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밴드 디스커버리'는 장르에 상관없이 EP(Extended Playing) 이상의 음반을 1장 이상 발매한 뮤지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KT&G 상상마당 홈페이지(http://www.sangsangmadang.com)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차 전문가 평가와 2차 공개 경연 심사를 거쳐 2팀이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팀들에게는 총 상금 600만원과 상상마당 기획공연 및 '2019 상상실현 페스티벌' 출연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라이브 공연 영상제작 등 홍보활동 지원, 상상마당의 다른 음악 지원사업 참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당진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 가상화재 불시가동훈련

당진소방서(박찬형)는 지난 21일 오전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재난 발생 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당진종합운동장에 가상화재 상황을 부여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구조, 구급, 재난대응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 평가해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통합적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긴급구조 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은 불시에 부여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따라 인력, 장비 등이 재난 현장까지 출동해 긴급구조 통제단을 설치하고 기능과 운영상태를 측정하는 훈련이다.

이날 당진소방서 대원 총 67명이 참여하고 차량 8대가 동원됐 으며 ▲개인 안전장구 착용 상태 ▲현장 활동사항의 적절성 ▲장비 조작능력 ▲개인별 임무 및 안전 수칙 숙지 여부 ▲ 출동 중 상호 무전 연락체계의 적절성 ▲현장 활동 중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사상자 관리 일치 여부, 긴급구조 지휘대와 긴급구조 통제단 간 정확한 정보교류, 위기상황 조치능력 배양 등을 중점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당진 =최근수기자

봄철 여행주간 안심 수학여행 지원

공주소방소, 화재안전 점검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봄철 수학여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숙박시설의 화재안전 점검 및 수학여행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안심수학여행을 지원한다.

숙박시설 점검은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미리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해 화재점검을 요청하면 시설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구 ·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 안전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시 전 학생 및 인솔교사 사전교육 지원과 수학여행 동행으로 현장 초기대응 안전컨설팅을 퇴직소방관 및 119대원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인솔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한 개별행동은 절대 하지 말고 선생님 ·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학교시설공사 효율화로 약 20억 원 예산절감 효과

세종시교육청, 예산 절감 및 우수한 품질 확보로 일거양득의 효과 기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19년 추진(예정) 중에 있는 11개 교육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사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해밀유 · 초 · 중 · 고, 나성유 · 초 · 중, 반곡고, 제2특성화고, 조치원중(이전), 학생안전교육원

** 모래가 많이 섞인 흙, 공사를 위해 현장부지에서 파낸 흙을 의미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동지역 신설학교 공사 중 발생한 사토를 공사현장 인근 지역에 처리하고, 부지조성이 대부분 암성토로 조성되어 학교설립 예정 부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사토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에 수립한 '토공사 운영계획'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 신설학교 추진에 따른 사토처리를 통합 관리하여 동지역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토사를 인근 읍면지역 학교현장에서 확보함으로써, 양측 현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4-1생활권 반곡고등학교와 2-4생활권 나성유 · 초 · 중학교 신설현장에 필요한 토사를 인근 제2특성화고(금남면) 현장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6-4생활권 해밀유 · 초 · 중 · 고등학교 4개교 신설현장에 필요한 사토처리와 토사확보 등 토공사 운영까지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치원중학교(이전) 추진에 있어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지구 연수단지(교육청) 인근 부지로 사토를 처리하여 적기 학교설립을 위한 공정관리와 함께 사토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동지역 학교현장에서 토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토사를 인접한 시 · 도(공주, 대전 등)에서 반입할 경우를 비교한다면 예산절감 금액의 효과는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학교공사 현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절감된 금액은 교육정책과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시설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말 제2특성화고 건립을 위한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2019년 본격적인 신설학교 추진에 돌입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서산여고, 전국사격대회 개인전 은메달

제20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참가

서산여자고(교장 송기무)는 지난 21일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이루어진 제20회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하여 10M공기권총 종목에서 오정은 학생이 개인전 2위(은메달)에 올랐다고 밝혔다.

미추홀기 전국 사격 대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인천광역시와 함께 매년 주최하는 전국 단위 규모의 중 · 고생이 참여하는 사격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21일 개막해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95개 팀 64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특히 올해 대회는 청소년 대표와 꿈나무선수, 동아시아유스 공기총사격대회 참가선수 선발전을 겸해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이 이루어졌다.

서산=김정한기자

2019 상반기 신규배치 원어민 보조교사 대상 직무연수 운영

대전시교육청, 한국인 협력교사와의 협력수업 방법 등 다양한 주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9 상반기 신규로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8명 및 2018 하반기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신규 원어민보조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교수-학습지도에 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각 학교 급별 맞춤식 학생 지도 방법, 효과적인 수업활동의 계획과 실행, 다양한 영어캠프 수업 활동, 수업 자료 개발 방법, 한국인 협력교사와의 협력수업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 문화 예술 체험의 일환으로 한글 도자 문패 체험 및 한글 캘리그라피 카드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여 낯선 학교환경 및 학생문화 등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적응을 돕는다.

대전교육청 고유빈 중등교육과장은 "신규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하루빨리 낯선 한국 생활 및 대전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교수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 도내 전체 교원 대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 · 공 · 사립 유 · 초 · 중 · 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명이며,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 원, 총액 10억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이며, 해마다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보험 가입은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운영, 심리검사서비스, 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Wee센터,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실시

상담주간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 간이 심리검사 제공

당진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2일 상담주간을 맞아 당진 KT 앞 광장에서 지역사회기관 YMCA '청소년 사랑의 밥차'와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길거리 상담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뤄졌다.

또한 간이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체험과 학교폭력 ○.×퀴즈, '요즘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등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고 상담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진교육지원청 Wee센터는 분기별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청소년 문제행동 사전예방, 유관기관과의 상담망 구축 등 적극적인 지역 연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학교로 찾아가는 Wee센터 체험 운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Wee센터는 신학기 상담주간(2019.3.11.~ 4.5)을 맞아 시내로부터 접근성이 낮은 읍, 면지역의 Wee클래스 미설치교를 중심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Wee센터 체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Wee센터 체험은 Wee센터 홍보와 함께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 정보를 퀴즈 맞추기, 룰렛 돌리기 등의 재미있는 이벤트와 곁들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행사이다. 지난 22일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봉황중학교(25일), 탄천중학교(26일), 정안중학교(4월 5일)를 각각 찾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영덕교육장은 "상담주간 운영을 통해 공주Wee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충남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부장 협의회 개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부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역량 강화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부장들은 올해 특수교육 주요 사업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 · 직업교육, 중증장애 희망일자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실무 전반에 대해 공부하며 장애 영역별 지역중심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도내에는 현재 시 · 청각장애 2개소, 자유학기제 6개소, 통합교육 2개소 장애영유아교육 6개소 등 장애영역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가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에 근거해 일상생활 속 장애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권지원단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부장들은 향후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자기 계발과 정책 공유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도교육청은 현장 공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향대학교, 특별한 '다이어트챌린저' 키운다

재학생 대상…SRC(순천향기숙형대학)서 제공 프로그램

순천향대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SRC(순천향기숙형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이어트챌린지 프로젝트'를 실시, 성공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방과후 활동으로 내걸어 눈길을 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1학기 3월 중 신청후 4월~5월까지 2개월 간 집중적인 도전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맛봄과 동시에 건강과 장학금도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성취효과를 얻게 된다.

'다이어트챌린지'는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수행과 장시간의 PC,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체 불균형 및 비만 등에 대한 회복을 위한 대학의 건강운동문화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일회성의 단순한 체중 감량만이 아닌 참여 경험을 통해 대학생활 동안 지속가능한 운동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통한 참여의욕 고취 및 성취감 충족을 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개설된 종목으로는 ▲스피닝 ▲체형교정과 크로스핏 ▲리프레쉬 요가 ▲헬스 ▲축구, 농구 등 자율운동 등을 선택하여 각 종목별 체지방량 감소 상위 1명에게 성공장학금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각 종목별 차 순위자 2명에게는 교내 휘트니스센터 한 학기 이용권을 지급한다.

도전 프로그램 중 ▲체형교정과 크로스핏은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7시~8시 ▲리프레쉬 요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7시 약 1시간 동안 교내 생활관 지정 활동실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수용인원을 감안, 선착순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 종목은 휘트니스센터나 동아리에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후 도전할 수 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 등록 후, 교내 보건실을 통해 최초 인바디 측정결과지를 제출하고, 프로그램 최종 종료 시 재측정해 변화된 결과 치를 측정하여 선발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보령교육지원청Wee센터, 찾아가는 심리검사 실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지난 22일 대천중학교 8학급과 28일 청소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리검사서비스는 Wee센터 전문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 정신건강, IT과몰입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넓고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금성초,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 참가 아산 금성초등학교(교장 김재동) 4,6학년 학생들은 25일,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진행된 '2019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선포식'에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했다. '하모니 아인세, 함께 어우러지는 디지털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리더가 될거에요" 공주교대부설초(교장 김연화)는 지난 23일 서울대학교 및 대학로 파랑씨어터에서 1학기 전교 및 학급 스마트 학생자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임원수련회를 실시했다. 1학기 임원수련회에 참여한 63명의 전교 및 학급 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대학교캠퍼스 투어와 서울대학교학생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송강복지관 드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원자력연구원과 체육활동 진행 송강사회복지관 부설 드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지난 23일 재량토요체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즐거운 체육활동인 축구, 탁구, 바둑을 진행했다. 활동 후에는 지도선생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교류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 정●●●

천안함 용사 9주기 추모 참배식

양승조 충남도지사= 26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용사 9주기 추모 참배식에 참석.

남부학교지원센터 개소식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6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보람동 스마트허브 408호에서 진행되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및 남부학교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제248회 예산군의회 폐회

황선봉 예산군수= 26일 오전 9시 추사홀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특별교육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48회 예산군의회 폐회에 참석.

군수협의회 회장단 국회방문

김석환 홍성군수=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국회방문에 참석.

세종 '진드기 감염증' 반려동물 통한 인체전파 막는다

유기동물센터 중심 실태조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시험소가 봄철 외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서의 진드기 감염증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에서 채집·의뢰된 진드기 종류의 분리·동정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베시아증, Q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 진드기매개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진드기에서 추출한 병원체 유전자 증폭을 통한 방법(PCR : Polymerase Chain Reaction)이 활용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동물, 사람,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반려동물을 통한 인체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는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 및 유기동물을 통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인체 전파를 예방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반려동물의 진드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책이나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진드기가 많은 풀숲이나 잔디밭 등에는 출입을 삼가야 하며 외출 후에는 진드기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산책 후 고열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과 관할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인체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을 통해 인체에 전파 가능한 진드기 매개 질병 정보를 파악해 사전차단을 위한 활동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이동지원 서비스 포함 건강프로그램 실시

"어르신들 활기찬 노후 지원"

예산군보건소는 3월부터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지원 서비스로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교통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보건소로 이동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편의 및 이동권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 및 건강 상담, 치매선별검사 및 인바디, 스트레스 측정, 100세 건강 교육관 관람 및 건강사랑방 이용, 건강강좌, 노인 신체활동 체조 및 웃음치료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3월 29일 역리 마을회관 ◇4월 2일 산성주공아파트 노인정 ◇4월 5일 만사리 마을회관 ◇4월 9일 신리 오생이 경로당 ◇4월 12일 수촌리 마을회관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져 보건소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보건소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39-6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

기초연금 세부기준개정·시행 따라…주민등록지읍·면·동등서신청

충남도는 내달부터 소득인정액 5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관련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약 37만명으로, 이 중 26만 6000여명(72.3%)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 요금 감면은 주민센터 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세종시, 장애인·고령층 대상 컴퓨터·스마트폰 무료교육

4~11월 매월 기초반·중급반·모바일반·자격증준비반 운영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장애인·고령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무료 정보화교육을 시행한다.

교육과정은 ▲한글문서 작성 ▲엑셀·파워포인트 기초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기초 ▲자격증준비(컴퓨터활용능력, ITQ) 과정 등이다.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복지관(대표 변창수)에서 실시하고,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은 도담동에 위치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대표 신우용)에서 실시한다.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은 세종시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5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장애인 정보화교육(☎070-4240-7356) ▲고령층 정보화교육(☎044-864-3975) 등 각 기관으로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고령층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스펙코어 등 3개사 485억원 투자 유치

도(道)-군(郡)-기업 합동MOU 통해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약속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道)와 9개 시·군, 25개 기업이 합동 투자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식에서 ㈜스펙코어, ㈜영남케미칼, ㈜태진기연 등 3개 기업과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10만 6000㎡ 부지에 485억원 규모의 신설투자를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미 국내에서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펙코어는 항공기관련 부품과 경비행기 제조공장, 정비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내에 250억원을 투자해 비행기 조종사 교육장과 관광객들이 체험하거나 경비행기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비행연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영남케미칼은 경남 함양 등에 사업장을 둔 건실한 재생합성수지펠렛 제품 생산업체로 이번에 군에 220억원의 신설투자를 약속했고, ㈜태진기연은 인천 소재의 산업기계, 공해방지설비 제조업체로 15억원 규모의 공장을 예산군에 이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6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 557억 원 투자유치 협약

남양에프앤비㈜·㈜은성전장·㈜지노아이앤티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며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충남 홍성군은 지난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투자협약(MOU) 체결식에서 남양에프앤비㈜, ㈜은성전장, ㈜지노아이앤티와 557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은 151,303㎡의 부지에 557억 원을 들여 공장을 이전·증설하고 약 210여 명의 인력이 이주 및 신규 고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합동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내포신도시에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 및 충남도청 수부도시로써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남양유업㈜ 자회사인 남양에프앤비㈜는 다류, 탄산음료수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결성면 교항리 129,532㎡ 부지에 400억을 투자해 신규 생산라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동차 센서·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은성전장은 내포도시첨단산단 10,809㎡ 부지에 85억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경기도 부천시에서 비데·정수기 순간온수모듈을 생산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인 ㈜지노아이앤티는 내포도시첨단산단 10,962㎡ 부지에 72억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할 예정으로 내포신도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우리군에 입주 및 투자를 결정한 3개사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에 감사를 드리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충남도와 홍성군 외 8개 시·군에서 총 26개 기업과 4,73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김성구 기자

동정

통합방위협의회

오세현 아산시장=26일 오전 11시 2대대(수철리)에서 열리는 '2019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이·취임식

김홍장 당진시장=26일 오후 4시 당진터미널 광장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리는 교통안전캠페인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설악 웨딩타운 루비홀에서 열리는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

교통안전캠페인

김기재 당진시의장=26일 오후 4시 당진터미널 광장과 시가지 일원에서 열리는 교통안전캠페인에 참석.

개관행사

가세로 태안군수=26일 오전 9시 30분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태안군 보훈회관 증축 개관행사'에 참석.

국회 방문

김돈곤 청양군수=26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으로서 청양군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청양군 장평면 단체장회의 열려

장평면(면장 이원)은 지난 22일 면내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지난해까지 단체장회의 이끌었던 김비환 전 단체협의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체협의안, 면민체육대회 추진계획 등 면정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원 면장은 "지역현안에 대해 숙고하고 궂은일을 도맡는 단체장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면민화합을 위해 소통창구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에너지비용 절감사업 '취약계층 삶의 질' up

태안군, 7억원 예산 투입… 취약계층 687가구·경로당 32개소 대상 사업 추진

태안군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감 복지사업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국·도비 포함 총 7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교체 사업(3억 857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9163만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2억 3000만원)을 실시한다.

'취약계층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과 같은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로 교체, 에너지를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며, 군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313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374가구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관내 경로당 32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으로,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경로당 운영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전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 삽교호에서 기지시줄다리기 홍보행사 열려

지난 24일 관광지 일원에서 게릴라 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4일 당진 신평면에 위치한 삽교호 관광지에서 축제 홍보를 위한 게릴라 줄다리기 행사가 열렸다.

난타의 웅장한 공연에 이은 해오름 풍물단의 농악으로 시작을 알린 이날 게릴라 줄다리기에는 봄 주말을 맞아 이날 삽교호 관광지를 찾은 수 백 명의 관광객들은 서로 힘을 합심해 줄을 당기며 기지시줄다리기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었다.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가 매년 축제 홍보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게릴라 줄다리기는 직접 참여해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단순히 눈으로 보는 홍보 판촉물보다 훨씬 큰 홍보 효과가 있다.

이날 삽교호에서 진행된 줄다리기에는 당진시민 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삽교호를 찾은 관광객들도 함께 줄을 당기며 관심을 보였다.

한편 2019년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제례행사, 유네스코 줄다리기 한마당, 전국 풍물대회, 전국 스포츠줄다리기를 비롯해 줄나가기와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2분기 노인층 목욕·이미용권 배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품위를 위해 25일부터 29일까지 2/4분기 목욕 및 이·미용권 3만9000여 장을 배부한다.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되는 이용권은 어르신들이 직접 받거나, 이장이나 반장이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다. 이 이용권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군내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큰 목욕 및 이·미용권을 2분기에도 신속하게 배부해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이용권을 1인당 분기별 5매씩, 연간 20매(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827명이 지원대상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음봉면 행복키움 정기회의 열려

아산시 음봉면행복키움추진단(공동위원장 최광락, 송재영)은 지난 22일, 센터에서 3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신입단원 2명 위촉 및 4월부터 추진 할 텃밭 가꾸기사업, 저소득층 환경정리사업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대상자 선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후원 '2019 이쁘둥이 간식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후원 대상자 선정 등 앞으로 추진할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락 음봉면장은 "우리면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복키움추진단 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송재영 단장은 "단원들 모두 바쁜 일정에도 봉사활동에 함께해 줘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많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봄철 호흡기 질환 효과 '방풍나물 수확 분주

갯방풍 지역 4개 농가 약 1만6500㎡ 재배…품질과 상품성 인정

봄을 맞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인 웰빙 작물 '방풍나물'이 태안지역에서 한창 수확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갯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독특한 향, 그리고 약용 기능까지 겸비한 갯방풍이 지역 4개 농가 약 1만 6500㎡에서 한창 수확 중이다.

특유의 향과 아삭한 맛이 일품인 방풍나물은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며 잎을 이용한 쌈 채소 및 장아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천식, 비염,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 특히 봄철 미세먼지를 방어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용으로 쓰이는 뿌리는 감기, 두통, 발한에 효과가 있는 등 몸에 좋은 만능 작물로 손꼽힌다.

태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연중 25톤 가량을 수확해 출하하고 있으며, 태안산 방풍은 이달 현재 2㎏ 한 상자에 1만 원 선에서 거래돼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어 태안지역 농민들의 고소득 작목인 방풍나물 재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재배면적을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저한기자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 '자연드림교실' 운영

아산시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토피 고민해결 '자연드림' 교실을 연다.

오는 4월 12일~6월 14일(10주간) 매주 금요일 배방건강생활센터에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로 힘들어 하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연드림교실을 운영한다.

아토피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환자의 면역이상반응 및 피부 보호장벽의 이상 등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한다.

센터는 천연 아로마 요법, 환아와 부모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교육 등 스트레스 경감과 심신안정 프로그램으로 아토피 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자연드림 참가희망자는 배방건강생활센터(537-3595)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산업단지에 우량기업투자 활발

4개 기업 당진에 총 2040억 투자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 인더스파크를 중심으로 당진에 조성된 우수한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종근당건강㈜와 ㈜한내포티, ㈜영월 이엔에스, ㈜에스지오와 총 2,040억 원 규모의 기업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종근당건강㈜는 총 1,820억 원의 대규모 투자로 합덕 인더스파크에 건강기능식품 생산 공장을 13만 2000㎡ 규모로 설립하고, ㈜한내포티와 ㈜영월 이엔에스 두 곳은 석문국가산단에 각각 110억 원 과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에스지오는 30억 원을 투자해 합덕 일반산업단지에 오일레스 베어링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한다.

기업 4곳의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인원은 종근당건강 360명 등 모두 42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한내포티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인력을 10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어서 중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이번 투자에 앞서 지난해 ㈜LG화학과 한일화학공업㈜가 각각 2,000억 원과 500억 원을 투자키로 한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라미드 호텔&리조트가 석문산단 내 체육시설 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자해 30홀 규모의 골프장과 복합리조트를 건설키로 하는 등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올해 석문산단 인입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등의 호재가 크게 작용했다.

또한 합덕 인더스파크의 경우 종근당건강㈜의 이번 투자로 기존 분양률 50%에 79%로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근당건강㈜ 외에도 현재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이 있어 향후 분양률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클린 영인 민·관협의체 협약체결

아산시 영인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준찬)는 지난 22일, 센터에서 '클린영인 민·관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클린영인 민·관협의체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도자협의회 등 총 3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내용은 매월 지역대청소 적극참여 및 홍보, 단체 책임청소구역 지정 관리, 불법투기 근절신고, 캠페인 활동 등 총 6가지 사항으로 깨끗한 영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상호 합의했다.

이준찬 영인면 행정복지센터면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인만들기 위한 첫발로 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남토마토·벚꽃문화축제' 열려

청양군 청남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전수병)가 오는 4월 7일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일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제1회 '청남토마토·벚꽃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금강을 가로지르는 왕진교에서 장평면 미당리 신사거리까지 약 3㎞ 구간의 왕벚꽃길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축제는 청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계획한 주민주도형이고 지역 특산물이면서 자랑거리인 토마토, 그리고 4월의 청남을 화려하게 수놓는 토종 왕벚꽃길을 주제로 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유명 방송인 이용식(뽀식이)의 사회로 청양군 읍·면별 풍물단 초청 공연, 청남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이 이어진다.

또 대미를 장식할 3부 행사에서는 가수 배일호, 평양예술단, 미스·미스터 각설이, 예산보부상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수병 위원장은 "전체 면민이 한마음 한뜻을 갖고 밤낮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셔서 함께 즐기고 기쁨을 나눴으면 한다."고 전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계룡시, 장애인인식교육 ·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교육

계룡시는 지난 23일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관련 동영상,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전달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도왔다.

이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예방하고자 김미정 강사(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초빙해 아동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와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성범죄 유형을 다양한 사례로 살펴보고, 범죄 발생 시 보육교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묵 시장은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로 보육에 대한 부담이 많겠지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행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명불허전 논산 딸기 축제 대박으로 입증

인산인해 구름 관광객 몰려… 성황 속 논산 딸기 세계화 가능성 재확인

세계 최고의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논산 딸기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의 환호 속에 2019년 논산 딸기 축제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동남아 수출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낸 논산딸기는 올해 축제가 대박나며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상큼한 딸기향에 실려오는 달콤한 만남'을 주제로 논산천 둔치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2019년 논산 딸기 축제'는 화창한 날씨에 봄기운을 만끽하러 나선 관광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한민국 최고 축제임을 실감케 했다.

올해는 특별히 딸기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품질의 딸기를 선보이고자 예년보다 앞당겨 개최한 것이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큼 '대박 축제'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를 방증하듯 논산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준비했던 판매용 딸기가 조기에 매진되면서 판매에 나선 농민과 농협 관계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축제의 성공에는 논산 딸기만의 우수한 품질과 함께 '논산 딸기 축제 추진 위원회'가 지난 1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색다른 프로그램들도 한몫을 했다.

가족과 연인 단위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딸기 포장을 소량화하는 전략과 함께 평소 즐길 수 없었던 다양한 딸기 요리로 축제장을 찾은 이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하늘에는 축제기간 내내 국내에서 보기 힘든 연을 띄워 먼 곳에까지 축제장의 위치를 알렸는가 하면 딸기를 이용한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하는 체험 코너와 딸기 요리 코너는 연일 성시를 이뤘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기를 얻어오던 딸기 떡 길게 뽑기와 딸기잼, 딸기 케익 만들기, 딸기를 이용한 각종 음식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축제의 흥취를 더했다.

올해 딸기 축제 성공의 원인이 전통적으로 인기있던 축제 프로그램만은 아니다. 4차산업혁명의 결정체 중 하나인 AI(인공지능)로봇 '먹보딸기'가 어린이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한편 3D프린팅체험도 진행되어 딸기 홍보에 일조했다.

이 같은 모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제기간 1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서 편하고 안전한 축제를 만드는 초석을 제공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2회를 맞이하는 논산딸기축제가 성공적인 끝을 맺게 된 것에 대해 농업인들과 축제 기간 중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논산딸기 축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번 축제는 우리 시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세계화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딸기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개발로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축제 개막식에는 17개국 주한 외교사절단과 대사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논산 딸기를 맛보고 연거푸 '원더풀'을 외치며 큰 관심을 보여, 논산 딸기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정

간담회

구본영 천안시장= 2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에 참석.

추진상황 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 26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참석, 오후 4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장항화물선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간담회

박정현 부여군수= 26일 오전 11시 서동 브리핑실에서 개최되는 역대 군(부)의장 간담회에 참석.

부여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이달부터 4월 19일까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과 법규 미비 등으로 인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및 안전점검 대상시설 191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군민 등의 참여 아래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대진단 기간 동안 모든 점검대상 시설은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그 외의 추가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합동점검 혹은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진단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난 위험이 높은 사항의 경우 보수 · 보강,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와 행정지도를 통해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군민 생활주변의 안전위해요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등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천안시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 추진

시민 의견 검토 후 민원인 주차난해소 · 편익 증진 위해 유료 전환

천안시가 올 상반기 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다.

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청사 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마다 주차불편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을 포함한 상주 임직원, 도서관 이용자 등이 청사 밖 노외주차장이 아닌 가까운 부설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면서 주차 회전율이 낮아져 실제로 시청 방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본영 시장이 직원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단속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하기도 했으나, 강제할만한 제도와 장치가 부족해 시는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청사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면 무단주차차량 또는 장시간 주차 이용자들의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실제 청사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차요금은 민원처리를 위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은 최초 1시간 30분 동안 무료이며, 이후 10분당 추가요금은 200원이다. 단, 해당부서의 민원방문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계룡시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공모 사업 선정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1억원 확보

계룡시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건립사업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기관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이번 공모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계룡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학술대회를 시작하는 등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이번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계룡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은 국내항일무장투쟁의 1인자로 1920년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해 일본총독을 처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체포되어 19년의 옥고를 치룬 조선독립의 거장이었다.

또 김좌진 장군에게 군자금 지원 등 수많은 항일투쟁을 한 역사적 인물로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으며, 2002년 국가보훈처가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는 나라사랑, 국방 중심도시 계룡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한훈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신도안면 정장리 일대에 국비 1억원, 도비 3억원,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한훈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지역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의 초석이 될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 건립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6%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9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군청 담당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용 태양광 · 지열 발전 설치비 지원

천안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천안시는 올해 1억72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태양광 발전설비 3㎾의 경우 140만원, 지열 175㎾는 175만원 등 설비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소식알리미(행정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순 미래전략산업과장은 "천안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공업체 선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참여 업체로 선정해 유사업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천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이해도 높이는 소통행정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해소를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상담으로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선상담 또는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해당 지역의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방문상담을 통해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후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41-950-4479, 43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세도 금강변, 방울토마토와 유채꽃으로 물들다'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꽃 축제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

2019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꽃 축제 (4월 26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2019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꽃 축제실행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유흥수 부군수, 각 실과장, 읍 · 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홍규 세도면장은 이번 축제를 위해 세도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 이벤트, 체험, 전시, 홍보, 먹거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2019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꽃 축제는 ▲공연=세시풍속(두레풍장, 장군제, 산유화가), 지역단체 재능기부 공연, 버스킹, 마술 공연 등 ▲이벤트=방울토마토경매, 불꽃놀이, 무료사진인화서비스, 방울토마토 레크리에이션, 핀볼 등 ▲체험=전문자원봉사단 힐링체험, 토마토스킨 만들기, 캘리그라피, 천연염색, 유채 당나귀마차 타기 등 ▲전시=(비닐하우스 전시관) 방울토마토 묘목 화분, 전통농기구, (야외 테마전시관) 세도7경, 세시풍속, 마을유래 등 ▲판매=방울토마토 판매장, 방울토마토 가공식품 판매장, 굿뜨래 로컬푸드 직판장 ▲먹거리=우어회장터, 기타 먹거리장터, 푸드트럭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 세심한 준비로 성공적인 농산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바가지 요금과 주차난 등의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 부여세도 방울토마토&유채꽃 축제는 드넓게 핀 유채꽃과 달콤한 방울토마토를 즐기고 싶은 상춘객들을 위해 준비된 축제로 오는 4월 26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작년과 달리 행사가 야간까지 운영되어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볼 수 있고, 매일 밤 9시에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 정

한마음 장학금 기탁식

김정섭 공주시장=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한마음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

얼음낚시 축제 초청 방문

김동일 보령시장 = 3.26.~4.1. 러시아 바이칼 얼음낚시 축제 초청방문.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

맹정호 서산시장= 26일 오전 10시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오후 2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63회 서산아카데미에 참석,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간담회에 참석, 오후 7시 30분 해미천에서 열리는 해미벚꽃축제 점등식에 참석.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문정우 금산군수= 26일 오전 11시 금산읍 게이트볼장서 열리는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보령시, 1일 80톤서 230톤 증가… 중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도 가능해

보령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난 2012년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285억여 원을 투입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 착공됐으며, 지난 22일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마쳤다.

증설사업의 처리공법은 기존 공법과 같이 담체를 이용한 활성슬러지공법(BCS)이며, 정화처리시설의 고액분리인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전량 폐기물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일부 약품이 사용되지 않은 슬러지의 경우 가축분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

이에 따라 기존 1일 80톤에서 150톤 증가한 230톤으로 처리용량이 늘어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및 3000두 미만의 허가대상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분뇨까지 처리가능하게 되어 수계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친환경 비료생산 및 공급을 통한 환경순환형 농업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로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인근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주민의 악취 민원까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정미 기자

공주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및 캠페인 전개

일제 대청소 실시, 4월까지 국토대청결운동 기간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22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시내 주요 청소구역 10개소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공무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 국토대청결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겨우내 쌓여 있던 묵은 쓰레기와 우수로 등에 투기된 담배꽁초, 도로변·공터·하천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 5톤 여 가량을 일제히 수거했다.

이와 함께 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가정 등 방문청결의 날 운영 △하루 10분!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청소체험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실시 △폐식용유 수거처리사업 등의 홍보 활동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 깨끗한 공주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한편, 시는 4월까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 마을 등 생활주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진기연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국토대청결운동 기간 동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명품관광도시 공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금산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완료

"아름다운 금산 소나무림 보존·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금산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마무리됐다.

금산군은 70.17ha에 대한 예방나무주사(군북면 내부리 산49-3번지 등) 및 100대 소나무림 4개소의 장기 예방나무주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예찰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재선충 완전 예방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방제작업은 소나무재선충 발생지 인근 2㎞ 선단지 방제 및 우량림을 대상으로 예방나무주사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금산 소나무림을 보존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찰방제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고사목 제거사업 추진과 재선충병 발생 억제로 건강한 숲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시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녹지조경팀(041-750-3416)으로 신고 하면 된다.

금산=주연기기자

보령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준공

보령시는 25일 오전 주교면에서 김동일 시장과 주교 어촌계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교어촌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국비 등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80.02㎡ 규모로 가공시설과 냉동시설을 갖췄다.

이에 따라 주교면 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어획되는 각종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연간 2000톤의 바지락을 가공·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산지 가공시설 준공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의 보관과 판로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령 =김정미 기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차 추진위원회

공주시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전승수)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2일 의당면사무소에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을 기초 생활 거점으로 육성해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접근이 제한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년 동안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통통 커뮤니티센터 건축 ▲재활용품 수집장 조성 ▲돌담 설치 및 버스정류장 정비 ▲청룡천변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정관과 행복통통 커뮤니티센터 사업대상지에 대해 논의됐으며 마을 발전에 대한 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계영 면장은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활력의 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정상범 기자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 운영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박선우)는 4월 13일 시행되는 2019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대비해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을 운영한다.

2018년부터 MOU 체결을 통해 탑브레인 학원(김용석 원장)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및 검정고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왔다.

현재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은 시험 전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회 운영되고 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시험일 이후에도 제2회 검정고시(8월)에 대비해 멘토링, 무료 인터넷 강의, 검정고시 교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응시생 43명 전체가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선우 센터장은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 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료 건강검진, 자격취득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자기계발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및 참여 신청은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41-751-1383)로 하면 된다.

금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총기생산업체 독일 '발터사' 서산시청 사격팀에 총기 기증

서산시는 지난 22일 서산시종합사격장 준공식에서 세계 최고의 총기 생산업체 독일 발터사로부터 사격장 준공식을 기념해 권총 1정과 특별히 제작한 모형총기 2정(LG400 소총, LP500 권총)을 기증받아 사격장 내 진열장에 전시했다.

이날 발터사가 기증한 권총은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의 SSP PISTOL로 사격팀 선수의 체격과 경기력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발터사와의 인연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 서산시 선수들의 경기력을 눈여겨 본 발터사와 감독, 선수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총기를 기증하게 되었으며, 발터사로부터 총기를 기증받은 실업팀의 경우는 국내에서 서산시 사격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터사는 그동안 2012년부터 권총 8정과 소총 4정 총 5천4백만원 상당의 총기 12정을 서산시에 기증했다.

독일 발터사 울프 헤인즈 플라우머 회장은"서산의 새로운 사격장 준공식을 맞아 발터와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산시청 사격팀에게 발터사의 LG400과 SP500 두정을 기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 기자

공주시,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해빙기 중점 관리기간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30일까지를 '해빙기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공주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옹벽 2곳과 사면 6곳, 건설현장 1곳 등 관내 해빙기 집중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 균열, 붕괴 등 결함 여부 ▲건설현장의 가설시설물 및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성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등이다.

시는 집중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보수보강 등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 등 선 안전조치 후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공주경찰서와 안실련, 안전보안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해빙기 안전관리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공주=정상범 기자

매월 지역 향토음식 전승 위한 교육 갖는다

보령시, 지역 향토음식 전승·생활자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보령시는 지역 향토음식의 전승과 생활자원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쩜장 만들기' 과제교육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열린 '보령 쩜장 만들기' 교육은 우리음식연구회(회장 우재옥)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관계자로부터 향토음식 특강과 신전균 석화촌 대표로부터 쩜장 만들기 이론 및 실습교육, 회원 정보교류 및 화합활동으로 진행됐다.

보령 쩜장은 충청도에서 즐겨먹던 재래식 한식된장의 또 다른 이름으로, 콩으로 만든 메주에 칼칼한 맛을 더해 매콤하고 개운한 맛이 특징이며 국이나 찌개, 강된장, 쌈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향토음식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향토음식 전승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상희 농업지원과장은 "전주하면 비빔밥, 담양하면 떡갈비, 부산하면 돼지국밥이라는 음식 브랜드가 떠오르는데 우리 충청도와 보령에도 고유의 맛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 음식을 현대식 입맛에 맞게 복원하여 우리의 맛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오늘의 하이라이트

▲ 비켜라 운명아 (KBS1 오후 8시25분)

남진(박윤재)과 승주(서효림)는 돌아가신 승주의 어머니를 만나러 수목장으로 향한다. 남진과 시우(강태성)의 외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수희(김혜리)는 급기야 공황발작을 일으키는데...

▲ 강남 스캔들 (SBS 오전 8시20분)

"임신했다고 해" 방은희, 없는 치료제로 협박?!
"제대로 이별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준의 병을 알게 된 세현은 이를 숨겨온 백희에게 분노한다. 곧 세현은 백희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자 백희는 경악한다. 다시 소유와 시작하겠다는 세현에게 백희는 처음으로 세현을 질리듯 보는데...

▲ 해치 (SBS 오후 10시00분)

정일우, 불어오는 역풍에 위기!
이금에 대한 백성들의 신망이 높아지자 태구는 이금을 경계한다. 한 편 우연히 작은 사건을 맡게 된 문수는 그 사건의 끝에 조정을 개혁할 불씨가 숨어있음을 알아차리고, 여지는 지난 밤 이금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하는데...

케이블 명화

▲ 분노의 질주 더 세븐 (OCN 오후 2시00분)

역대 최강의 멤버 VS 사상 최악의 상대 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한 뒤 전과를 사면 받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도미닉(빈 디젤)과 멤버들.
하지만 평화도 잠시, 한(성 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어, 도미닉의 집이 순식간에 폭파당한다.
그들을 차례대로 제거하려는 최악의 상대 데카드 쇼(제이슨 스타뎀)의 등장으로
도미닉은 다시 한 번 역대 최강의 멤버들을 불러모아 숨막히는 반격을 결심하는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또 다른 주인공!
액션의 끝을 장식할 초호화 슈퍼카들의 향연을 목격하라! 클래식한 머슬카부터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슈퍼카들이 끊임없이 질주하고 폭발하며 카체이싱 액션의 진수를 선보이는 <분노의 질주>. 이번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역시 지난 시리즈보다 성능, 파워, 그리고 규모까지 모든 것이 진화된 슈퍼카들이 등장해 다시 한번 카 액션의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다.

▲ 친구2 (채널CGV 오후 10시30분)

"니 내랑 부산 접수할래?"
친구 '동수'(장동건)의 죽음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된 '준석'(유오성). 17년 만에 출소한 그는 몰라보게 달라진 세상과 어느새 조직의 실세로 성장해있는 '은기'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다. '준석'은 아버지 '철주'(주진모)가 평생을 바쳐 이뤄놓은 조직을 되찾기 위해 흩어져있던 자신의 세력을 다시 모으고, 감옥에서 만나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젊은 피 '성훈'(김우빈)을 오른팔로 두게 된다.
"담배 떨쳐가 우리 아버지 죽이라고 신호 줬다면서예?"
친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성훈'은 마치 아버지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준석'에게 의지하며 그와 함께 부산을 접수하기 위해 힘쓴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을 찾아온 '은기'는 '동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성훈'을 혼란에 빠트리는데...
두 남자의 숙명적인 만남! 친구를 잃은 그 날,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된다!
곽경택 감독이 12년만에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한국영화 최고의 브랜드 <친구>의 부활!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5:10 미인어
6:50 인천상륙작전
9:00 수상한그녀
11:20 킬잇(KILL IT)
14:00 분노의질주:더세븐
16:30 마스터
19:20 빙의
22:00 7년의밤

◈ 채널 CGV
4:40 웜바디스
6:30 메카닉
08:20 씽
10:20 동갑내기과외하기
12:30 로그원: 스타워즈스토리
15:00 킬잇(KILL IT)
18:00 침묵
20:20 킹아서:제왕의검
22:30 친구2

◈ Mnet
5: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7:10 M morning
8:00 썸바디
9:50 2018 MAMA in HONG KONG 베스트 퍼포먼스
12:10 썸바디 스페셜
13:40 MPD Music Talk(SNS/메신저)
14:30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
18:00 썸바디 스페셜
19:30 Daily Music Talk(SMS)
20:20 2018 MAMA PREMIERE in KOREA
23:00 인싸채널 체리블렛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8 NFL
13: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5:00 <당구스페셜>2018 클루망스 컨티넨털컵
17:00 2018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19:00 18-19 프로농구 CLUTCH TIME
19:30 18-19 SKT 5GX프로농구

◈ SBS 스포츠
11:00 2018 AFF 스스카컵 하이라이트
12:00 2018 아시안게임
14:0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5:40 2018 AFF 스스카컵 10분 하이라이트
16:00 18-19 V리그남자부
18:00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남자부

◈ 온스타일
6: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7:30 겟잇뷰티 2018
9:40 신혼일기
11:1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3: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5:30 겟잇뷰티 2018
16: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7:50 밥블레스유
18:50 식샤를 합시다 3 : 비긴즈
20:10 식샤를 합시다 3 : 비긴즈
21:20 대탈출
22:50 꽃청춘위너
23:50 밥블레스유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아시아 헌터
13: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4:15 이주의 법칙
14:45 잠베지 계곡의 사자와 악어
15:45 인도호랑이 쿠말의 여정
16:45 TV 동물농장
19:00 아시아 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21:00 <BEST PICK>지니어스

음악 · 애니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소풍
10:00 MBC MUSIC HIT SONGS
12:10 쇼! 음악중심
13:30 언더나인틴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창작의 신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 아이돌

◈ 애니맥스
6:00 바이클론즈 5
7:00 아울은너무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1:00 유후와친구들3
12:0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5

◈ JEI 재능방송
6:00 고고다이노 시즌2
7:00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파워캐치 윈다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플레이징 틴스5 part2
16: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중계방송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2:00 KBS 뉴스 12 1:00 3.1운동 100주년 특집 명예의 그늘 1: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0 중계방송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5 5:30 동물의 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KBS 뉴스7 7:35 이웃집 찰스 8:25 비켜라 운명아 9:00 KBS 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UHD 숨터 11:00 오늘밤김제동 11:40 특집다큐 태권도 평화를 향한여정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뉴스타임 9:00 비켜라 운명아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네변호사 조들호2-죄와 벌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제보자들 1:15 트레킹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0 KBS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00 영화가 좋다 6:00 KBS경제타임 6:40 2TV생생정보 7:50 왼손잡이 아내 8:30 글로벌 24 8:55 덕화티비 10:00 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 벌 11:10 입맞춤	6:00 MBC 뉴스투데이 7:50 용왕님 보우하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뉴스 9:55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12:00 12 MBC뉴스 12:20 기분 좋은 날 1: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 교실 1:55 2시 뉴스 외전 3:25 에어로버 3: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55 실화탐사대 스페셜 5:55 생방송 오늘 저녁 6:50 MBC 뉴스데스크 7:45 MBC 스포츠 KEB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10:00 아이템 11:10 수목미니시리즈 더 뱅커 프롤로그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40 모닝와이드 8:30 강남 스캔들 9:10 좋은 아침 10:0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2:00 뉴스브리핑 4:00 접속! 무비월드 5:00 SBS 오뉴스 6:00 영재발굴단 7:00 생방송 투데이 8:00 SBS8뉴스 8:55 본격 연예 한밤 10:00 해치 11:10 불타는 청춘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뉴스 7:50 충청남도 영상소식 8:00 뉴스와이드 8:50 리쉬아 요가 9:00 우리동네 생활체육 10:00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11:00 파인드 세종맛집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2:00 모스크바 작전 2:50 리쉬아 요가 3:00 CMB뉴스 3: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4:00 행 복비나리 5:00 김영진의 집대성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뉴스 7:30 메디컬 인 8:00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9:00 뉴스와이드 9: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0:00 CMB 집중토론 11:30 문학의 향기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7:30 띠띠뽀 띠띠뽀 7:45 꼬마버스 타요 8:00 딩 동댕 유치원 8:30 엄마 까투리 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9:00 방귀대장 뿡뿡이 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 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다큐 12:40 지식채널 e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4:2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상자 16:15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 동댕 유치원1 17:05 딩 동댕 유치원2 17:15 엄마 까투리 17: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8:2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2 18:25 호기심 나라 오키도 18:40 생방송 톡! 톡!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극한 직업 20:40 다큐 오늘

청양군, 제21회 국회의장기 생활체육배구대회 성료

전국 동호인 109개 팀 17000여명 참석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동호인 109개 팀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국회의장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배구협회, 청양군배구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남자부 클럽2 · 3부, 장년부, 시니어부, 실버부, 미시부, 여자부 클럽3부 등 7개 부별로 예선리그전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렸다.
대회 결과 남자클럽 2부 WE라온 A팀, 남자클럽 3부(고추리그) WE라온팀, 남자클럽 3부(구기자리그) 전주V9팀, 장년부 서울 중랑구팀, 시니어부 대전서구시니어팀, 실버부 충청어울림팀, 여자 3부(고추리그) U&I팀, 여자 3부(구기자리그) 서울배구클럽A팀, 미시부에서는 목동에이스팀이 최강자로 등극했다.
또 남자 2부 김미혜, 남자 3부(고추리그) 황상원, 남자 3부(구기자그리) 박승민, 장년부 박관섭, 시니어부 김연중, 실버부 이병수, 여자 3부(고추리그) 전윤서, 여자 3부(구기자리그) 구나영, 미시부 박혜옥 선수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이규명 심판은 우수심판으로 뽑혔다.
한편 23일 진행된 개회식에서 배구 발전 및 대회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박종석 청양군배구협회 전무이사가 대한민국배구협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개회식에는 청양출신 전 국가대표 정선흥, 전차량 씨를 비롯해 현 남자 국가대표팀 김호철 감독, 임도헌 코치 등 많은 배구인 들이 자리를 함께해 대회를 빛냈다.
김돈곤 군수는 "배구는 섬세하고 정교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한민국을 대표 스포츠"라며 "사계절이 아름다운 한국 제일의 청정지역에서 배구를 즐긴 동호인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한밭도서관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展'

한밭도서관은 대전지방국세청의 협조로 내달 2일부터 28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청소년 세금문예작품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세를 주제로 국세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전국 청소년 세금문예공모전'에 입상한 포스터, 만화, 글짓기 작품 40여점과 관련도서를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는 성실한 납세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에게는 세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세금에 대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금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밭도서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4월 24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야간 연장 운영해 오후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김태선기자

대전시티즌, 젊은 피 앞세워 '4경기 무패' 도전

오는 27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

대전시티즌이 젊은 피를 앞세워 FA컵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다.
대전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단국대학교와 '2019 KEB하나은행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대전의 상승세가 무섭다. 어느새 개막 후 3경기 연속 무패다. 안산그리너스FC, 전남드래곤즈 원정에서 짜릿한 2연승을 거뒀고, 홈에서 열린 서울이랜드FC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7점으로 1위 광주FC와 동률, 다득점에서 밀려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팀'으로 뭉친 대전의 조직력이 무패 행진에 제대로 한몫했다. 작년 주축 멤버 대부분을 지킨 대전은 부상으로 빠진 키쭈 대신 김승섭이 투입된 점을 제외하면, 3경기 모두 같은 선발 라인업을 가동했다. 지난 시즌부터 발을 맞춘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명단이었다.
선수들은 믿음에 100% 보답했다. 3경기 내내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수비진은 라인을 일정하게 맞춰 움직였고, 11명 선수의 간격은 90분 내내 촘촘하게 유지됐다. 특히 후반 난타전 흐름 속에도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수를 전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지솔, 박인혁, 윤용호 등 어린 선수들은 3경기 모두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 끝까지 저돌적인 압박을 선보였다. 상대팀보다 많이 뛰며 강한 압박을 요구하는 고종수 감독의 축구 철학을 이해한 모습이었다.
대전은 단국대와 경기에서 한층 더 젊은 선수단으로 승리에 도전한다. 고종수 감독은 "대학팀인 단국대와 FA컵 경기를 치르는 만큼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고, 어린 선수들을 출전시킬 생각이다. 어린 선수들도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기대된다"라고 변화를 예고했다.
대전은 이번 시즌 출중한 기량을 갖춘 젊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연령별 대표팀 출신 이정문과 고준희가 대전 유니폼을 입었고, 지난 전남전 데뷔전을 가진 서우민도 대전시티즌 유스 출신으로 촉망받는 기대주다.
단국대와 대결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존재감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다. 리그에서는 기존 주축 멤버들의 호흡이 뛰어나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기 어렵다. 단국대전 활약으로 고종수 감독과 대전 홈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지금, FA컵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고종수 감독은 "지난 시즌 성남에게 패하며 일찍 떨어져 아쉬웠는데, 올해는 팬들에게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FA컵에서도 달라진 대전을 약속했다.

김정환기자

대전대 정구부 '제40회 회장기 전국정구대' 대학부 단체전 준우승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정구부(감독 조홍석)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순창 공설운동장실내 다목적구장에서열린 '제 40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표이사 안 경 호

레저용품 전문점
MSL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사이클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모터보트 전문점 · 골프용품
대표이사 최 재 종

공주대, 후원의 집 제60호점 현판 전달식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박달원)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에 위치한 "바우정원"을 공주대 후원의 집 제60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외협력과 백광현 과장을 비롯한 바우정원 김은성 대표, 재단법인 공주대학교 발전기금 관계자, 바우정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태경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25일, 윤태경 지사장이 새로 취임했다. 윤 지사장은 충남 아산 출신(66년생)으로 92년 한국농어촌공사 공채로 입사했고 감사실 감사총괄부장을 거쳐 아산지사장으로 발령받았다.

LX 대전충남본부,직장교육 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을식)는 지난 23일 아산지사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시스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온양1동 부녀회, 떡과 식사로 사랑 나눠 아산시 온양1동 부녀회(회장 안예숙)는 28일,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박상철 새마을지도자(효성모터 대표)로 부터 지원받은 쌀 20Kg로 떡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드)리고, 온양1동 부녀회장들이 식사대접을 하며 행복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양로타리 · 청양레드로타리, 주거환경개선 봉사 청양로타리클럽(회장 이중연)과 청양레드로타리클럽(회장 정순임) 회원들은 지난 23일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A씨(남, 80세)를 방문, 주택 내`외부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주 탄천면 두레풍물단, 사랑의 물품 전달 공주 탄천면 두레풍물단(회장 유원영) 회원들이 지난 22일 관내 마을 경로당24개소에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

대전과학기술대 치위생과 '장애인 구강건강관리-튼튼치아 밝은미소'

장애인대상 구강보건교육 봉사활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학과장 양진영)는 3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성세시온의 집'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기여 · 상생프로그램으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와 대전광역시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가 공동 기획하였고, 치위생과 3학년 재학생 33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는 '성세시온의 집' 내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건강관리-튼튼치아 밝은미소"라는 주제로 학생과 장애인 1:1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졌다.

치위생과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고,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 및 올바른 칫솔질 방법, 식이조절법 등에 대한 이론과 1:1실습 교육이 병행되었다.

한 교육 참석자는 "칫솔질은 소홀하기 쉬웠는데, 이렇게 1:1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흡족함을 나타냈다.

학과장 양진영 교수는 "치과질환은 구강건강 관리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대학-지역 상생협의체' 발대식

한밭대, 교직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국립 한밭대학교(최병욱 총장)는 25일(월) 오전 11시 학내 대학본부에서 '대학-지역 상생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축적된 지식과 인재풀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체는 교직원 · 학생 · 지역주민이 각각 3명씩 참여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상 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유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여타 상생협의체와 달리 학생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대표와 지역의 통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학생 대표로 학회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 주민 대표는 계산동과 덕명동 통장 및 상가 번영회장, 교직원은 학생과장과 도서관 · 평생교육원 팀장이 참석해 대학과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위원장을 맡은 한밭대 가부현 학생과장은 "이번 상생협의체 발대식을 계기로 인근 수통골 하천 환경정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등 지역민과 우리대학 학생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한전원자력연료, 노사협약식 개최

노동존중 · 사회적 가치 창출 다짐

한전원자력연료는 25일 사내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약식을 개최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정부의 중점정책인 '안전문화 인식 제고', '노동존중'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책무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협약서에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일家 양득'의 일터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新 성장 동력 발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사회적 가치 달성이 채택됐으며, 이를 위해 노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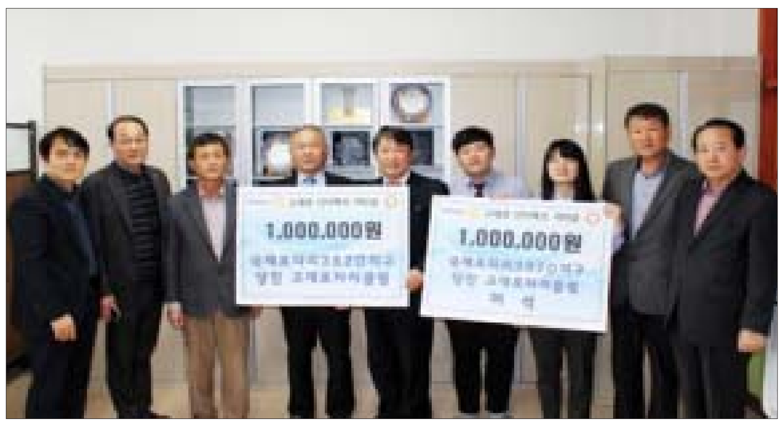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인삿말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안전에서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기술적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원자력연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노조위원장은 "노동존중을 기반한 노사 상생과 협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존중과 배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특강 교육이 이어져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송병배기자

당진 고대 로터리 클럽, 고대중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인터랙트'

고대중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비 지원



당진 고대 로터리클럽(회장 신준호)은 지난 21일 당진 고대중학교(교장 오경수) 봉사활동 동아리 인터랙트에 활동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활동비 지원은 당진 고대 로터리클럽에서 100만 원, 로터리클럽 허석 회원이 개인적으로 100만 원 등 200만 원을 후원했다.

고대중학교 인터랙트 동아리는 2015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매년 2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봉사활동 하기, 삼선산 수목원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찾아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당진 고대 로터리클럽 신준호 회장은 "로터리클럽의 기본정신을 살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기특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후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유성구 노은2동 두란노 감리교회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간식 봉사

대전시 유성구 노은2동(동장 백준흠)은 두란노 감리교회(목사 김근수)에서 지난 2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간식으로 호떡을 구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두란노 교회에서는 관내 외롭게 지내시는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이 잠시라도 무료함을 잊으시며 소소한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도록 매주 10가구에 호떡 봉사를 하며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누고 있다.

간식 나눔은 두란노 교회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웃 돌봄 실천 방법을 생각하던 중 평소 간식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간식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노은2동에 전해오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해 겨울 김장김치를 담가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는 등 지역의 이웃을 돌보는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근수 목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정철상 호서대 교수, 한국이벤트학회 회장 당선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정철상 교수가 최근 열린 '2019년 한국이벤트학회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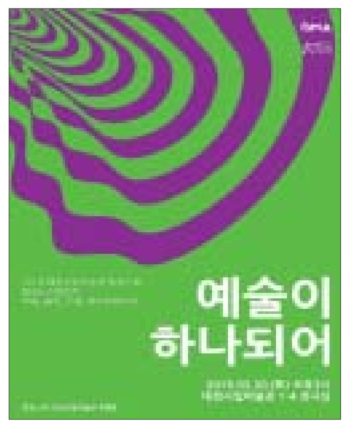
한국이벤트학회는 1999년 창립한 20년 전통의 국내 최초 이벤트학회로서 이벤트관련 연구와 논문집 발간, 학술대회 등 이벤트와 관련된 제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학회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문화예술, 컨벤션, 축제, 박람회, 전시, 미디어,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정치, 스포츠 및 관광 등의 이벤트 및 문화산업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정철상 신임회장은 "한국의 이벤트 산업발전과 학문적 증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여 더욱 선진적 학문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는"소감을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미술관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무대



오는 30일 오후 3시 특별한 무대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학술,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은 이날 'DMA 스테이지'를 개최한다.

'DMA 스테이지'는 '예술이 하나 되다'를 주제로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DMA 컬렉션'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 물질의 양립성, 온도, 분위기 등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융복합 공연으로 미술관 로비와 1-4 전시실 내에서 열린다. 바흐 첼로 모음곡 1번과 2번과 같은 익숙한 곡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목원대학교 서은숙 문화예술대학원장과 공동기획 하에 테너 전상용, 첼리스트 남궁동, 바이올리니스트 장진선, 안무가 신하얀, 이은경, 김은진, 신아름 등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한다. 시립미술관의 이번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공통언어인 '예술'로서 교류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미술관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김태선기자

■알 림

▲ 5.18유공자 수사의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규탄 기자회견
= 26일 오전11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주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기 고

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 상생협력 · 동반성장 기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동남아 3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비전 2035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2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혁신산업, 식품가공, 화장품 등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식품과학, 바이오,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특허협력분야 등 3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보루네오섬 북단에 6위치한 브루나이는 인구 43만의 소국이지만,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자원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 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단순 수입을 넘어서 에너지 개발에서 저장, 수송까지 LNG 벨류체인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사업에서 우리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혀 천연가스와 인프라 협력에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완공한 리파스 대교에 이어 올해 추진 중인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아세안의 비지니스 허브인 말레이시아는 인구 3200만 명, 일인당 GDP가 만불 수준이어서 구매력이 큰 시장이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경쟁력을 갖춘 선발개도국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192억 달러로 말레이시아는 ASEAN국가 중 네 번째 교역파트너이고, 3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철강, 전자, 건설,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한류-할랄 전시회를 참관하고, 글로벌 할랄 리더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다양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주도로 할랄인증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억 명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할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서 조만간 3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공동 진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ICT,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공동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보다 발전시켜 양국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자간 FTA를 올해 중 체결하자고 전격 합의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캄보디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으로서 역내 개발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정부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동안 교통, 보건, 수자원, 교육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6억 7000만 달러(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 경제는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와 관광 · 건설 · 의류 수출 호조로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캄보디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빈국 특혜관세를 활용한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서 200여개 한국기업들이 의류, 봉제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개발과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하고, 농업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한-아세안 관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포함해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국가들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이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사 설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

연예인들이 얽힌 '정준영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의아해한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받는 상처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정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도 명백히 괴리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의자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징역이나 금고형은 8.7%에 그쳤고 대부분 벌금형(55%)이나 집행유예(27.8%)로 풀려났다. 절도나 상해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정준영 사태'를 낳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횟수가 많아도 여간해선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 이미 3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촬영 횟수가 179회나 되는데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 말 다했다.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인 것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통하는 조직은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고 있다.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와 개인 간 성적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양진호 사건'에서 드러났듯 디지털 범죄가 기업화 양상을 보인 지 오래됐다. 불법 촬영과 유포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9%에서 2017년 202%로 급증했다. 유통조직과 이를 공유 · 배포하는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온정 없는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는 이유다.

사정이 변한 만큼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또한 바뀌는 게 맞다. 합당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는 범죄 행태에 맞춰 관련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이런 범죄를 조장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칼 럼

한중, 상생번영을 열어가자

이창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2주 만에 미국의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 요구를 공식 거부하며 15개월째 중단하고 있는 핵 · 미사일 실험 재개를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작금, 한반도를 둘러싼 역대 강대국들의 한국에 대한 배타적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과의 상호 외교촉진 및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에서 적지 않는 외교 네트워킹 부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 평화, 번영, 통일기반을 위해 자생력을 키워가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첫째로는 남과 북을 연결함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라시아까지 뉴실크로드 개통, 1만 킬로미터 철도 수송시대 잇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단언컨대, '한중정상회담'을 신속히 제안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구축'을 하며 한중 신뢰의 기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부문에 대한 적정한 해명과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국간의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며,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1,800백km로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을 폭넓게 이해하고 또한 주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꽌시(關係)로 발전해야 한다. 중국 정치는 비공식정치, 문화적, 사회적 등 전략적 접근으로는 꽌시(關係)라는 개념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중국 꽌시는 양국 외교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비로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다자체제의 옹호의 입장에서 상호이익에 존중해야 한다. 모처럼 맞이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한 · 중 관계의 대외정책 관리들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자신감과 공유적 의지를 갈등이 없이 구현해야 한다.

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작금,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질서를 위해 중 · 일 양자구도로 재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과 관계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국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상생번영'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

한편, 한중 핵심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통섭은 문재인정부의 한중 상생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재부각하는 동시에 한중 국가지도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위해 흔들림 없이 위업(爲業)을 달성해야 한다.

세종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첫삽'

사업비 230억 투입 2020년 12월 완공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세종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5일 30분 반곡동 66-6번지에서 '세종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로, 지상 3층에 연면적 4,946㎡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시설로는 1층에 4레인 규모의 25미터 수영장, 2층에는 실내체육관, 3층에는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장, 다목적실이 설치되며, 야외에는 인접한 수변공원과 연계한 산책로가 조성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가 함께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관점을 반영, 건물입지 결정 및 설계 과정에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해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17년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에 시비 180억 원을 추가해 총 230억 원을 투입, 오는 2020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나 불편함 없이 함께 이용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 체육으로 더 행복한 건강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 기자

영인산자연휴양림, 아름다운 자태 '봄 꽃' 만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이 레저스포츠, 숲속 야영장, 숲속 휴게쉼터 등으로 봄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년화, 노루귀 등 예년보다 이르게 얼굴을 드러낸 봄꽃들의 개화를 시작으로 매화, 산수유, 히어리 등의 식물들도 봄소식을 알리기위해 애쓰고 있다.

이 외에도 영인산자연휴양림에는 1,200여종의 식물을 계절마다 감상할 수 있어 꽃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휴양림 관계자는 "봄이 찾아온 영인산에서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에 싱그러움을 가득 채우는 시민 휴양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봄을 맞이해 새롭게 개장하는 시설, 휴게쉼터 등도 운영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리량주 기자

안면도 관광지, 민간개발 1개업체 '도전'

개발공모 접수마감… (주)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 단독 형태로 3지구 응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민간개발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 1개 법인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충남도는 25일 오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공모 접수 마감 결과, '㈜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의 단독법인 형태로 3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보증금 5억원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개발전문 민간업체다.

'㈜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안면도 관광지 3지구(54만 4924㎡)에「일몰, 일출의 붉게 물든 태양과 소나무, 바다의 풍경을 담아 내 마음의 휴식과 치유를 편안한 공간 "솔해"」라는 컨셉으로 2025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 1253실 규모의 고급숙박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4,5월중으로 1,2차 평가를 실시하고 5월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응모 지구인 1지구 테마파크와 4지구 골프장은 3지구에 대한 본 계약 및 공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재 공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PIH가 '㈜케이피아이에이치안면도' 법인을 설립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기대감이 크다"며 "3지구 단독 응모인 만큼,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태안군 안면읍 승언 · 중장 · 신야리 일원 294만 1735㎡에 총 1조 8852억 원(민간자본 1조 8567억 원)을 투입, 테마파크,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립해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김성구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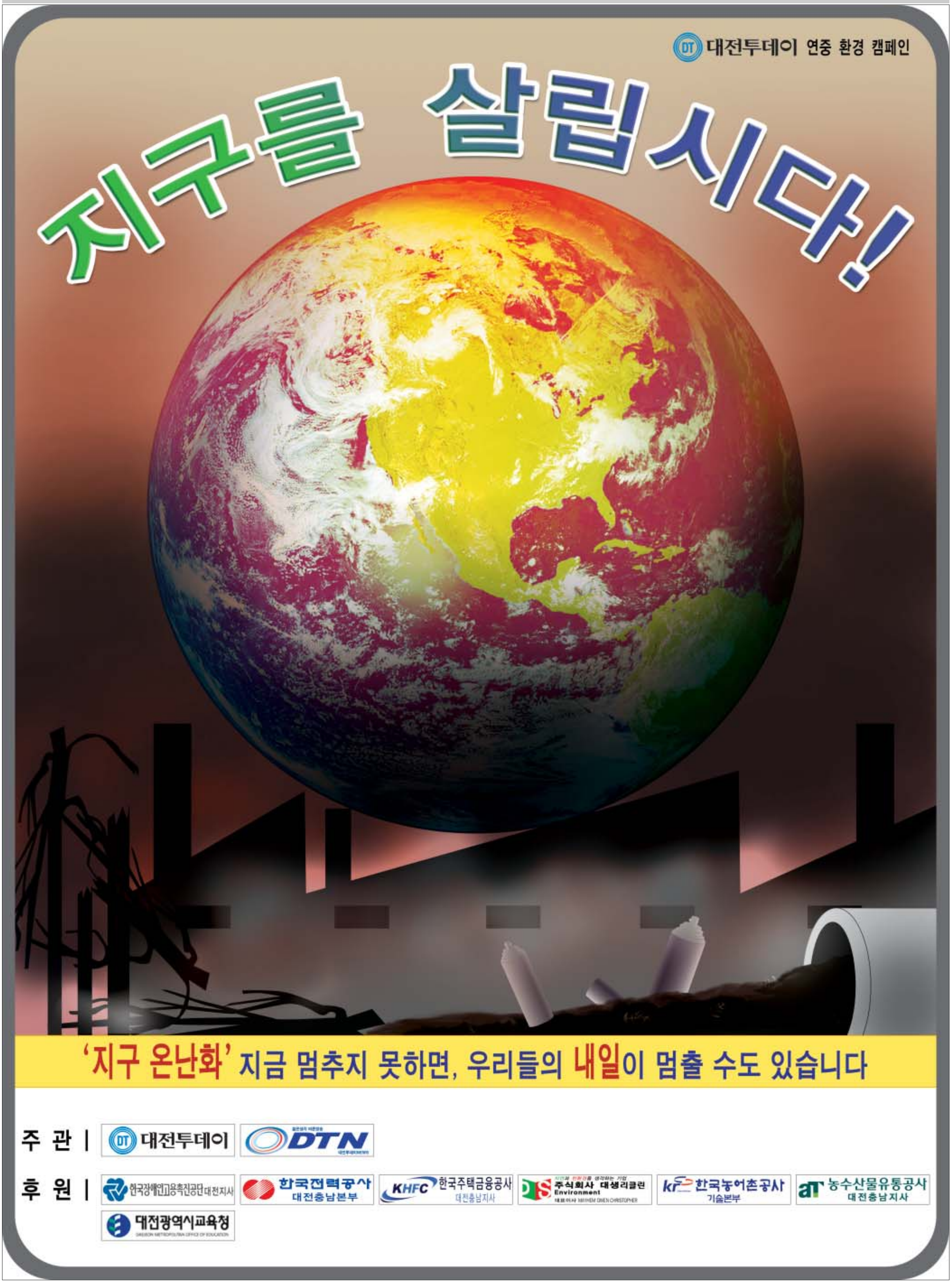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리클린 Environment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전광역시교육청